








□ 부록2. 문화 정보 해설 한국수어 영상 자료 원고



(1) 국립광주박물관(8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박물관 소개	<p>국립광주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12월 6일에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재와 신안 해저에서 발굴된 문화재 등 8만 7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 회의 학술 조사와 150여 회의 전시 및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문화터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p>	<p>국립광주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78년 12월 6일에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은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국립박물관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재와 신안 해저에서 발굴된 문화재 등 8만 7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 회의 학술 조사와 150여 회의 전시 및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문화터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p>	<p>국립광주박물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환영)</p> <p>박물관 개관은 1978년 12월 6일이며 광복 이후 한국인의 손으로 직접 세운 역대 최초의 국립박물관입니다.</p> <p>광주 전남 지역과 신안 해저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 8만 7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p> <p>그동안 학술조사 100여 회와 전시 및 맞춤형 교육 150여 회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했습니다.</p> <p>앞으로 계속해서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中興山城 雙獅子 石燈	<p>사찰 경내에 불을 밝히기 위해 세운 석등으로 두 마리의 사자가 등불을 밝히는 부분을 받치고 있어 ‘쌍사자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사자가 부처의 진리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런 이유로 사자의 모습을 새긴 듯합니다.</p> <p>중흥산성쌍사자석등은 두 마리의 사자가 꽃꽂이처럼 서서 가슴을 맞댄 채 불밝이창을 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①연꽃잎으로 장식된 팔각의 받침돌, ②쌍사자가 받치고 있는 팔각형의 불밝이창, ③지붕돌과 보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흥산성쌍사자석등의 전체 높이는 약 2.7미터입니다.</p> <p>원래 중흥산성쌍사자석등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안 절터에 삼층석탑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수탈에 의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103호인 중흥산성쌍사자석등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조형미와 간결한 장식이 돋보이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걸작이며, 현존하는 쌍사자석등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태를 자랑합니다.</p>	<p>사찰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 세운 석등입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등불을 밝히는 부분을 받치고 있어 ‘쌍사자 석등’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사자가 부처의 진리를 수호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사자의 모습을 새긴 듯합니다.</p> <p>석등은 ①꽃잎으로 장식된 팔각의 받침돌, ②쌍사자가 받치고 있는 팔각형의 불밝이창, ③지붕돌과 보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의 전체 높이는 약 2.7미터입니다.</p> <p>원래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산성 안 절터에 삼층석탑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수탈에 의해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103호인 중흥산성쌍사자석등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조형미와 간결한 장식이 돋보이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걸작이며, 현존하는 쌍사자석등 가운데 가장 완벽한 형태를 자랑합니다.</p>	<p>이것은 국보 제203호로 사찰을 밝게 하기 위한 것이다.</p> <p>등불 아래 사자가 받치고 있어 이름을 ‘쌍사자 석등’이라고 한다.</p> <p>전남 광양시 중흥산성 안에 절이 있던 터에 삼층석탑과 함께 있었다.</p> <p>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강제로 빼앗았다가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 중이다.</p> <p>사자의 모습이 새겨진 이유는 불교에서 부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p> <p>석등의 모양은 세 부분</p> <p>① 꽃잎으로 장식된 팔각의 받침돌, ② 쌍사자가 받치고 있는 팔각형의 불밝이창, ③ 지붕돌과 보주(둥근 공 모양의 구슬)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가 약 2.7m이다.</p> <p>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유물이며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	슴베찌르개 有莖尖頭器	<p>슴베가 있는 찌르개입니다. 슴베는 막대에 끼우거나 붙들어 댈 수 있게 만든 부분입니다. 슴베찌르개를 기다란 막대에 달아 ‘창’으로 사용하거나 그보다 짧은 막대에 매어서 화살촉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슴베찌르개는 유라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년 전에 해당되는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순천 덕산리 죽산 유적과 월암리 월평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하는 무렵에는 돌창이나 돌화살촉으로 발전되었습니다.</p>	<p>슴베는 막대에 끼우거나 붙들어 댈 수 있게 만든 부분입니다. 슴베찌르개를 기다란 막대에 달아 ‘창’으로 사용하거나 그보다 짧은 막대에 매어서 화살촉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후기 구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슴베찌르개는 유라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년 전에 해당되는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순천 덕산리 죽산 유적과 월암리 월평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슴베찌르개는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부터 돌창이나 돌화살촉으로 발전하였습니다.</p>	<p>막대에 끼우거나 붙들어 댈 수 있게 만든 뾰족한 부분이다.</p> <p>이것을 기다란 막대에 끼워 ‘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짧은 막대에 묶어서 ‘화살촉’으로 사용하기도 했다.</p> <p>약 2만 년 전 유적으로 단양 수양개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순천 죽산 유적과 월평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p> <p>구석기 후기 유물이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었다.</p>	
4	이음 낙싯바늘 結合式釣針	<p>낙싯바늘의 축과 가시 모양의 갈고리가 달린 미늘을 따로 만들어, 끈으로 묶어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결합식 조침이라고도 합니다. 축은 돌로 만든 것이 많으며, 미늘은 주로 동물 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낙싯바늘은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출토되며, 남해안과 가까운 일본 열도에서도 확인됩니다. 낙싯바늘이 크기 때문에 입이 큰 물고기를 낚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낙싯바늘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p>	<p>낙싯바늘의 축과 가시 모양의 갈고리가 달린 미늘을 따로 만들어, 끈으로 묶어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결합식 조침이라고도 합니다. 축은 돌로 만든 것이 많으며, 미늘은 주로 동물 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낙싯바늘은 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출토되며, 남해안과 가까운 일본 열도에서도 확인됩니다. 낙싯바늘이 크기 때문에 입이 큰 물고기를 낚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낙싯바늘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p>	<p>낙싯바늘의 축(바늘 비뚤어진 중심부에서 바늘의 귀 끝)과 가시 모양의 갈고리가 있는 미늘을 따로 만들어 끈으로 묶어 사용하는 바늘이다.</p> <p>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의 낙싯바늘을 만들어 사용하였다.</p> <p>낙싯바늘의 축은 돌로 만든 것이 많고 미늘은 동물 뼈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p> <p>남해안 일대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발견되며 남해안과 가까운 일본에서도 발견된다.</p> <p>바늘이 크기 때문에 입이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	귀걸이 玦狀耳飾	<p>중국의 고대 옥기인 ‘결玦’과 닮았다 하여 ‘결상이식’, 즉 ‘결 모양의 귀 장식’이라 부르는 귀걸이입니다.</p> <p>‘결’은 한쪽이 끊어져 틈이 있는 고리 모양의 옥입니다. 아마 귓볼에 구멍을 내어 착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상이식은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10여 점 가량이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여수 안도 패총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은 호남 지역의 유일한 출토품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p>	<p>중국의 고대 옥기인 ‘결(玦)’과 닮았다 하여 ‘결상이식’, 즉 ‘결 모양의 귀 장식’이라 부르는 귀걸이입니다.</p> <p>‘결’은 한쪽이 끊어져 틈이 있는 고리 모양의 옥입니다. 귓볼에 구멍을 내어 착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결상이식은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해안 지역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10여 점 가량이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 여수 안도 패총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은 호남 지역의 유일한 출토품으로 귀중한 자료입니다.</p>	<p>이 귀걸이는 고대 중국의 옥인 ‘결’과 비슷하여 ‘결 모양의 귀 장식’이라는 의미로 ‘결상이식’라 부른다.</p> <p>‘결’은 고리 한쪽이 끊어져 틈이 있는 고리 모양의 옥을 말한다.</p> <p>귓볼에 구멍을 내 착용하는 것이다.</p> <p>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10여 점 정도가 발견되었다.</p> <p>2007년 여수 안도 조개무덤에서 발견하였으며 이것은 호남 지역에서 하나뿐인 귀한 것이다.</p>	
6	흑요석 黑曜石	<p>화산이 분출할 때 생성된 흑요석은 날카롭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 돌칼이나 화살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흑요석의 원산지는 일본 규슈의 코시다케(腰岳)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 열도에서는 한반도에서 만든 조개팔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흑요석과 조개팔찌 등을 교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화산이 분출할 때 생성된 흑요석은 날카롭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 돌칼이나 화살촉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흑요석의 원산지는 일본 규슈의 코시다케(腰岳)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본 열도에서는 한반도에서 만든 조개팔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서로 왕래하며 흑요석과 조개팔찌 등을 교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화산이 분출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쪼개지는 형태가 날카로워 돌칼이나 화살촉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p> <p>신석기 시대 유물로 이것을 발견한 곳은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다.</p> <p>이것은 일본 규슈의 코시다케 지역의 것으로 확인되었다.</p> <p>또한 한반도에서 만든 조개팔찌가 일본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신석기 사람들이 흑요석과 조개팔찌 등을 교환했음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	덧무늬토기 隆起文土器	<p>신석기시대 초기에 사용된 토기 가운데 하나인 덧무늬토기는 기원전 6,000~5,000년 전에 나타납니다. 토기에 점토 띠를 덧붙여 무늬를 새기거나 표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 돌게 하여 무늬를 장식한 점이 특징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포함한 동남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지만, 여수 송도 패총 등 서남 해안과 멀리 흑산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남해안 전역에서 덧무늬토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수 송도 패총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는 서남 해안 지역에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p>	<p>신석기시대 초기에 사용된 토기 가운데 하나인 덧무늬토기는 기원전 6,000~5,000년 전에 나타납니다. 토기에 점토 띠를 덧붙여 무늬를 새기거나 표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 도드라지게 하여 무늬를 장식한 점이 특징입니다. 덧무늬토기는 부산과 김해를 포함한 동남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지만, 여수 송도 패총 등 서남 해안과 멀리 흑산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남해안 전역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수 송도 패총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는 서남 해안 지역에 이른 시기부터 신석기시대 문화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p>	<p>토기에 점토 띠를 덧붙여 무늬를 새기거나 표면을 손끝으로 집어 눌러 무늬를 장식한 토기이다.</p> <p>신석기시대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기원전 6,000년~5,000년 전에 나타난다.</p> <p>이것이 발견된 곳은 여수 송도로 서남 해안 지역에 신석기시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이 토기는 부산과 김해 동남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여수 송도 등 서남 해안과 흑산도에도 발견된 것을 볼 때 남해안 전역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p>	
8	새김돌은띠 무늬토기 刻目突帶文 土器	<p>토기 아가리 부분에 도드라지게 점토 띠를 덧붙여 두르고 그 위에 무늬를 새겨 넣은 토기입니다.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나타나는 새김돌은띠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진주 대평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새김돌은띠무늬토기는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양 태목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p>	<p>토기 아가리 부분에 도드라지게 점토 띠를 덧붙여 두르고 그 위에 무늬를 새겨 넣은 토기입니다.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초기에 나타나는 새김돌은띠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진주 대평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새김돌은띠무늬토기는 호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담양 태목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p>	<p>토기 아가리에 점토 띠를 붙이고 그 위에 무늬를 새겨 넣은 토기이다.</p> <p>신석기시대 말부터 청동기시대 초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다.</p> <p>이것은 전국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호남 지역 중 담양 태목리 유적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9	붉은간토기 赤色磨研土器	적색마연토기, 홍도라고도 부릅니다. 토기를 굽기 전이나 후에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문질러 붉은색이 나는 토기입니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주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나 무덤 등에서 출토됩니다. 고운 흙으로 얇게 빚은 붉은간토기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고흥 한천리 유적 등 일부 유적에서만 발견됩니다.	적색마연토기, 홍도라고도 부릅니다. 토기를 굽기 전이나 후에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반들거리게 문질러 붉은색이 나게 만든 토기입니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주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나 무덤 등에서 출토됩니다. 고운 흙으로 얇게 빚은 붉은간토기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고흥 한천리 유적 등 일부 유적에서만 발견됩니다.	토기를 굽기 전이나 구운 후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붉은색이 나게 만든 토기이다. 이것의 이름은 붉은간토기이고 적색마연토기, 홍도라고도 한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며 청동기시대의 집이 있던 곳이나 무덤 등에서 발견된다. 영남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호남 지역에서는 고흥 한천리 등 몇몇 곳에서만 발견된다.	
10	가지무늬 토기 彩紋土器	무늬를 그려 넣은 토기라는 뜻으로 채문토기, 채도 등으로도 불립니다. 어깨 부분에 있는 검은색 가지무늬는 토기를 구울 때 식물 등에서 나온 탄소가 자연스럽게 토기 표면에 스며든 것입니다. 대체로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한 가지무늬토기는 주로 무덤에서 꺼문거리로 발견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화순 장학리 유적 등 몇몇 유적에서만 출토되었습니다.	무늬를 그려 넣은 토기라는 뜻으로 채문토기, 채도 등으로도 불립니다. 어깨 부분에 있는 검은색 가지무늬는 토기를 구울 때 식물 등에서 나온 탄소가 자연스럽게 토기 표면에 스며든 것입니다. 대체로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한 가지무늬토기는 주로 무덤에서 꺼문거리로 발견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화순 장학리 유적 등 몇몇 유적에서만 출토되었습니다.	무늬를 그려 넣은 토기라는 뜻의 채문토기, 채도 등으로 불린다. 토기의 어깨에 검은색 가지 모양이 있으며 이것은 토기를 구울 때 식물이 타면서 토기에 새겨진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즈음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대부분 무덤의 꺼문거리로 발견된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많으며 특히 영남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호남지역에서는 화순 장학리 등 몇몇 곳에서만 발견되었다.	
11	덧띠토기 粘土帶土器	아가리에 점토 띠(덧띠)를 말아 붙인 토기로, 점토 띠의 단면이 원형 또는 삼각형입니다. 점토 띠를 견고하게 붙이기 위해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단면이 원형인 덧띠토기가 삼각형 덧띠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덧띠토기는 주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 출토됩니다.	아가리에 점토 띠(덧띠)를 말아 붙인 토기로, 점토 띠의 단면이 원형 또는 삼각형입니다. 점토 띠를 견고하게 붙이기 위해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단면이 원형인 덧띠토기가 삼각형 덧띠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덧띠토기는 주로 한강 이남 지역에서 출토됩니다.	토기의 아가리에 점토 띠(덧띠)를 말아서 붙인 토기다. 점토 띠의 모양은 원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다. 토기에 점토 띠를 잘 붙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이 보인다. 주로 발견되는 곳은 한강 이남 지역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2	바리 深鉢形土器	<p>심발형토기라고도 합니다. ‘심발형’이란 그릇 몸통의 지름보다 속이 깊은 사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아가리가 살짝 벌어져 있고 적갈색을 띤 표면에는 격자문이 남아 있습니다. 편평한 밑바닥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있으며, 이것은 점토를 회전판이나 물레에 고정하기 위해 쫓은 축의 흔적입니다.</p> <p>심발형토기와 같이 민무늬토기에 비해 두께가 얇고 적갈색을 띤 토기를 연질토기라고 합니다. 회전판이나 물레에 점토 띠를 쌓아 올리고 회전력을 이용하여 만든 연질토기는 단단하고 얇게 만들기 위해 나무판으로 바깥 면을 두드리면서 점토 속의 공기를 빼냅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판에 새겨진 바둑판무늬(격자무늬) 또는 나무판을 감은 새끼줄 무늬(승석무늬)가 남기도 합니다.</p>	<p>심발형토기라고도 합니다. ‘심발형’이란 그릇 몸통의 지름보다 속이 깊은 사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아가리가 살짝 벌어져 있고 적갈색을 띤 표면에는 격자문이 남아 있습니다. 편평한 밑바닥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있으며, 이것은 점토를 회전판이나 물레에 고정하기 위해 쫓은 축의 흔적입니다.</p> <p>연질토기는 심발형토기처럼 민무늬토기에 비해 두께가 얇고 적갈색을 띤 토기입니다. 회전판이나 물레에 점토 띠를 쌓아 올리고 회전력을 이용하여 만들며 단단하고 얇게 만들기 위해 나무판으로 바깥 면을 두드리면서 점토 속의 공기를 빼냅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판에 새겨진 바둑판무늬(격자무늬) 또는 나무판을 감은 새끼줄 무늬(승석무늬)가 남기도 합니다.</p>	<p>심발형토기라고도 하는데 ‘심발형’의 의미는 그릇의 몸통이 지름보다 깊은 모양이라는 뜻이다.</p> <p>두드려서 만들어 표면이 단단하고 두께가 얇으며 적갈색의 연질토기이다.</p> <p>짧은 아가리가 살짝 벌어져 있고 토기의 바깥에는 격자문이나 새끼줄 무늬가 남아 있다. 이것은 토기 표면을 나무판으로 두드려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판의 격자문(바둑판무늬) 또는 나무판을 감은 새끼줄 무늬가 토기에 남은 것이다.</p> <p>회전판이나 물레에 점토를 고정한 뒤 회전시키며 점토띠를 쌓아 올려 만들었다. 때문에 토기의 밑바닥에 고정된 흔적인 사각형 모양이 있다.</p>	
13	등근바닥 짧은목 항아리 圓底短頸壺	<p>원저단경호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토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밑바닥에 굽이 있는 형태에서 새로운 제작 기술을 사용해 둥근 바닥의 토기로 변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둥근 바닥의 토기는 밀폐된 가마에서 섭씨 1,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주로 회청색을 띠며 단단하여 경질토기라고 부릅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지역마다 특징적인 형태의 경질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전판이나 물레를 사용해 형태를 만든 경질토기의 표면에는 두드린 무늬(타날무늬)가 남아 있기도 하며, 무늬를 전부 또는 일부 지운 것도 있습니다.</p>	<p>원저단경호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토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밑바닥에 굽이 있는 형태에서 새로운 제작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둥근 바닥의 토기로 변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둥근 바닥의 토기는 밀폐된 가마에서 섭씨 1,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주로 회청색을 띠며 단단하여 경질토기라고 부릅니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지역마다 특징적인 형태의 경질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회전판이나 물레를 사용해 형태를 만든 경질토기의 표면에는 두드린 무늬(타날무늬)가 남아 있기도 하며, 무늬를 전부 또는 일부 지운 것도 있습니다.</p>	<p>원저단경호라고도 하는 이것은 가마를 밀폐한 후 섭씨 1,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운 토기로 색깔이 회청색이 대부분이고 단단하다.</p> <p>우리나라 토기는 굽이 있는 형태에서 둥근 바닥의 토기로 변화하며 발달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지역마다 특징이 있으며 회전판이나 물레를 사용해 만들어 토기 표면에 나무로 두드린 무늬가 남아 있기도 하고 무늬를 지운 것도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4	간돌검 磨製石劍	간돌검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청동 검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손잡이와 검몸이 하나로 된 ‘자루 달린 간돌검’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검몸과 조립하는 ‘슴베 달린 간돌검’으로 구분됩니다. 간돌검은 집자리에서도 출토되지만, 주로 고인돌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또한 이것은 무기 또는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사용된 까닭에 당시의 사회구조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70여 점의 간돌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흥 중산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간돌검은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확인된 간돌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길이가 43.3cm입니다.	간돌검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청동검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손잡이와 검몸이 하나로 된 ‘자루 달린 간돌검’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검몸과 조립하는 ‘슴베 달린 간돌검’으로 구분됩니다. 간돌검은 집자리에서도 출토되지만, 주로 고인돌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또한 이것은 무기 또는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구조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170여 점의 간돌검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흥 중산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간돌검은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확인된 간돌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길이가 43.3cm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청동검을 본떠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의 손잡이와 검몸이 하나로 된 것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집이 있던 터에서도 발견되지만 주로 고인돌에서 많이 발견된다.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170여 점의 간돌검 중 고흥 중산리 고인돌에서 발견된 검의 길이가 43.3cm으로 가장 길다.	
15	비파형 동검 琵琶形銅劍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중국의 고대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동검이라 부릅니다. 중국 랴오닝(요녕) 지방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요녕식동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검몸의 아랫부분이 둥글고 중간에 돌기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은 스킴베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여 점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만 2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여수 월내동 유적에서 출토된 길이 43.4cm의 비파형동검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큼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중국의 고대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동검이라 부릅니다. 중국 랴오닝(요녕) 지방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요녕식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몸의 아랫부분이 둥글고 중간에 돌기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비파형동검은 스킴베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토된 50여 점의 비파형동검은 전남 여수 지역에서만 2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여수 월내동 유적에서 출토된 길이 43.4cm의 비파형동검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큼니다.	중국의 고대 악기인 ‘비파’와 비슷하여 이름을 붙였으며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중국 요녕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어 ‘요녕식동검’이라고도 부른다. 검몸의 아래가 둥글고 중간에 돌기부가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은 스킴베에 홈이 있다. 전국적으로 발견된 50여 점 중 25점이 전남 여수에서 발견되었다. 여수 월내동에서 발견된 검의 길이가 43.4cm로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크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6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기 和順 大谷里 遺蹟 出土 靑銅器	<p>화순 대곡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4~3세기경에 축조된 돌무지널무덤으로, 통나무관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입니다. 돌무지널무덤은 무덤구덩이를 깊이 파고 널을 안치한 후 그 위를 돌로 채운 무덤입니다.</p> <p>1971년 도랑을 파다가 우연히 청동검 3점, 청동거울 2점, 청동방울인 팔주령과 쌍두령 각 2점, 청동도끼 1점, 청동새기개 1점 등 11점의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2008년 국립광주박물관의 제조사에서 청동검 2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검은 정치적 권위를,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며, 방울은 신을 부르는 제사용 기물로 청동기시대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은 1972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p>	<p>화순 대곡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4~3세기경에 만들어진 돌무지널무덤입니다. 통나무관이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입니다. 돌무지널무덤은 무덤구덩이를 깊게 파고 널을 놓은 후 그 위를 돌로 채운 무덤입니다.</p> <p>1971년 도랑을 파다가 우연히 청동검 3점, 청동거울 2점, 청동방울인 팔주령과 쌍두령 각 2점, 청동도끼 1점, 청동새기개 1점 등 11점의 문화재가 발견되었고, 2008년 국립광주박물관의 제조사에서 청동검 2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검은 정치적 권위를, 거울은 태양을 상징하며, 방울은 신을 부르는 제사용 기물로 청동기시대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화순 대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은 1972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p>	<p>이것은 1972년 국보 제143호로 지정된 유물들이다.</p> <p>발견된 곳은 화순 대곡리이다.</p> <p>1971년에 도랑을 파다가 우연히 유물을 발견하였다.</p> <p>이 유적지는 무덤구덩이를 깊이 파고 널을 안치한 후 그 위를 돌로 채운 것으로 통나무관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무덤이다.</p> <p>청동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4~3세기경의 것으로 본다.</p> <p>검 3점, 거울 2점, 방울인 팔주령 2점, 쌍두령 2점, 도끼 1점, 새기개 1점 등 모두 11점의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p> <p>검은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고 거울은 태양을 나타내며, 방울은 신을 부르는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다. 청동기시대 정치와 종교의 최고지도자인 ‘제사장’과 관련된 것이다.</p>	
17	오수전 五銖錢	<p>오수전은 기원전 119년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청동으로 주조한 화폐입니다. 수(銖)는 당시의 무게 단위로, 오수는 약 3.3g입니다. 둥근 형태로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오른쪽에 오(五)자가, 왼쪽에 수(銖)자가 새겨 있습니다. 수나라 때까지 900여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p> <p>한반도에는 철기 문화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남부 지역에는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여수 거문도에서 980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은 여수 거문도 출토품입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오수전은 위세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p>	<p>오수전은 기원전 119년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청동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수(銖)는 당시의 무게 단위로, 오수는 약 3.3g입니다. 둥근 형태이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오른쪽에 오(五)자가, 왼쪽에 수(銖)자가 새겨 있습니다. 수나라 때까지 900여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p> <p>한반도에는 철기 문화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남부 지역에는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여수 거문도에서 980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은 여수 거문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오수전은 위세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기원전 119년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청동으로 만든 화폐이다.</p> <p>발견된 곳은 여수 거문도이다.</p> <p>둥근 형태이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p> <p>구멍 오른쪽에 오(五)자가 새겨져 있고, 왼쪽에는 수(銖)자가 새겨 있으며 이것은 당시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다.</p> <p>‘오수’는 약 3.3g이다. 수나라 때까지 9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다.</p> <p>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남부 지역에는 적은 편이지만 여수 거문도에서 980점이 발견되었다.</p> <p>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은 위세품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8	수정 구슬 水晶玉	수정 원석을 채취한 다음 대롱이나 주판알 모양으로 떼어내고 양쪽에서 철침으로 구멍을 뚫은 후 솥돌에 갈아 다듬어 수정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수정 구슬은 호남 지역보다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보성 석평 유적에서는 수정 원석과 반가공품뿐만 아니라 구멍을 뚫는 철침과 같고 다듬는 데 사용된 줄 등 제작 도구가 함께 출토되어 그곳에서 수정 구슬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원석을 채취한 다음 대롱이나 주판알 모양으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철침으로 구멍을 뚫은 후 솥돌에 갈아 다듬어 수정 구슬을 만듭니다. 수정 구슬은 호남 지역보다 영남 지역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보성 석평 유적에서는 수정 원석과 반가공품뿐만 아니라 구멍을 뚫는 철침과 같고 다듬는 데 사용된 줄 등 제작 도구가 함께 출토되어 그곳에서 수정 구슬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 원석을 대롱이나 주판알 모양으로 떼어내서 양쪽에 철침으로 구멍을 뚫은 후 솥돌에 갈아 다듬어 구슬로 만든 것이다. 발견된 곳은 보성 석평 유적으로 수정 원석과 반가공품, 구멍을 뚫는 철침과 같고 다듬는데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수정 구슬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유리 거꾸집 琉璃鎔范	규사를 녹여서 만드는 유리구슬은 첨가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청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둥근 구슬 형태이며, 대롱옥이나 곱은옥 형태도 있습니다. 담양 태목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 거꾸집은 흙으로 만든 틀에 유리 용액을 붓고, 가운데 철심을 꽂아 굳혀서 구슬 형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광주 선암동 유적에서는 대롱옥이나 곱은옥 형태의 유리를 만든 거꾸집이 출토되었고,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도 유리 거꾸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마한 시기에 영산강 유역이 유리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기나 금과 은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모래(규사(硅砂))를 녹여서 만드는 유리 구슬은 첨가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청색, 녹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둥근 구슬 형태이며, 대롱옥이나 곱은옥 형태도 있습니다. 담양 태목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 거꾸집은 흙으로 만든 틀에 유리 용액을 붓고, 가운데 철심을 꽂아 굳혀서 구슬 형태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광주 선암동 유적에서는 대롱옥이나 곱은옥 형태의 유리를 만든 거꾸집이 출토되었고, 해남 군곡리 패총에서도 유리 거꾸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마한 시기에 영산강 유역이 유리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기나 금과 은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유리 거꾸집이다. 담양 태목리에서 발견된 것은 흙으로 만든 틀에 유리 용액을 붓고, 가운데 철심을 꽂아 굳혀서 구슬 모양을 만들 때 이용하는 것이다. 광주 선암동에서 발견된 것은 대롱옥이나 곱은옥 모양의 유리를 만드는 것이 발견되었다. 해남 군곡리에서도 유리 거꾸집이 발견되었다. 마한시기에 영산강 유역이 유리가 많이 만들어지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삼국지 책 위서 30권 중 ‘동이’ 부분)에 보면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기나 금과 은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유리구슬은 모래를 녹여 첨가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청색, 녹색 등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진다. 대부분 둥근 구슬 모양이고 대롱옥이나 곱은옥 모양도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0	쇠도끼 거푸집 鐵斧鎔范	쇠로 된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는 단조와 주조가 있습니다. 단조는 불에 달군 쇠를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고, 주조는 쇠를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광양 도월리 제철 유적에서 출토된 쇠도끼 거푸집은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인 4~5세기의 제철 관련 문화재로 이 지역 제철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입니다.	쇠로 된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는 단조와 주조가 있습니다. 단조는 불에 달군 쇠를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고, 주조는 쇠를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광양 도월리 제철 유적에서 출토된 쇠도끼 거푸집은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인 4~5세기의 제철 관련 문화재로 이 지역 제철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입니다.	쇠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쇠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단조’라고 한다. 둘째로 쇠를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방법을 ‘주조’라고 한다. 광양 도월리 유적에서 발견된 쇠도끼 거푸집은 현재까지 전남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4~5세기 때 제철 관련 문화재로 제철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21	새모양토기 鳥形土器	고대로부터 새는 영혼의 전달자 또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발을 갈고 있는 모습을 새긴 농경문청동기에 솟대와 새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도 새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에는 새를 형상화한 토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영남과 호서·호남의 새모양토기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새모양토기는 형태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호서·호남 지역의 새모양토기는 중앙에 아가리를 만들고 한쪽 끝에 주둥이를 만들어 실제로 액체를 붓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새는 영혼의 전달자 또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발을 갈고 있는 모습을 새긴 농경문청동기에 솟대와 새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도 새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에는 새를 형상화한 토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남과 호서·호남의 새모양토기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새모양토기는 형태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호서·호남 지역의 새모양토기는 중앙에 아가리를 만들고 한쪽 끝에 주둥이를 만들어 실제로 액체를 붓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모양 토기이다. 새는 고대부터 영혼의 전달자 또는 풍요를 주는 것으로 숭배되었다. 이것은 발을 갈고 있는 모습을 새긴 ‘농경문청동기’에 표현된 솟대와 새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 때는 새 모양의 토기를 많이 만들었다. 영남에서 만들어진 것과 호서·호남에서 만들어진 것의 차이가 있다. 영남은 새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사용은 할 수 없었다. 호서·호남은 중앙에 아가리를 만들고 한쪽 끝에 주둥이를 만들어 액체를 붓고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2	부뚜막 竈	<p>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는 조리를 하기 위해 지면을 약간 판 후 불을 지피거나 편평한 돌을 깔고 주위에 돌을 세운 화덕을 사용했으며,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부뚜막은 원삼국시대부터 확인됩니다. 부뚜막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입구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아궁이테를 붙였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구멍을 뚫어 토기를 엮을 수 있게 하였고, 바닥에는 돌을 세워 토기를 받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굴뚝은 아래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몸체 아래에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굴뚝은 1단인 경우가 많지만, 2단으로 쌓은 것도 있습니다.</p>	<p>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는 조리를 하기 위해 땅을 약간 판 후 불을 지피거나 편평한 돌을 깔고 주위에 돌을 세워 화덕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부뚜막은 원삼국시대부터 확인됩니다. 부뚜막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입구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아궁이테를 붙였습니다. 부뚜막 위에는 구멍을 뚫어 토기를 엮을 수 있게 하였고, 바닥에는 돌을 세워 토기를 받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굴뚝은 아래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몸체 아래에는 손잡이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굴뚝은 1단인 경우가 많지만, 2단으로 쌓은 것도 있습니다.</p>	<p>부뚜막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굴뚝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궁이 입구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아궁이 테를 붙였다. 부뚜막 위에는 구멍을 뚫어 토기를 엮을 수 있고 바닥은 돌을 세워 토기를 받칠 수 있게 한 특징이 있다. 몸체 아래 손잡이가 양쪽에 있고, 굴뚝의 아래는 나팔모양이고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굴뚝은 1단인 것도 있고 2단으로 쌓은 것도 있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는 조리를 하기 위해 땅을 약간 판 후 불을 피우거나 편평한 돌을 깔고 주위에 돌을 세워 화덕으로 사용했다.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의 부뚜막은 원삼국시대부터 확인이 된다.</p>	
23	유리금박 구슬 金箔琉璃玉	<p>금박 구슬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금박이나 금가루를 끼워 넣어 만든 구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진 것이 한반도로 들어오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후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 무덤에 끼묻거리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백제 무령왕릉에서 많은 양의 유리금박 구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 두세 가지 색깔의 유리를 길게 늘어뜨려 끈 후 잘라 만든 주름무늬구슬도 발견되는데, 이것 역시 중국과의 교류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슬은 당시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금박 구슬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금박이나 금가루를 끼워 넣어 만든 구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진 것이 한반도로 들어오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후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 무덤에 끼묻거리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백제 무령왕릉에서 많은 양의 유리금박 구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 두세 가지 색깔의 유리를 길게 늘어뜨려 끈 후 잘라 만든 주름무늬구슬도 발견되는데, 이것 역시 중국과의 교류로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슬은 당시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유리와 유리 사이에 금박이나 금가루를 끼워 넣은 구슬이다. 중동에서 만들어진 것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후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 무덤에 끼묻거리로 이용되었고 특히 백제 무령왕릉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두 세 가지 색의 유리를 길게 늘어뜨려 꼬아 잘라 만든 구슬(주름무늬구슬)도 발견되었는데 이것 역시 중국과 교류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4	딸린 곱은옥 母子曲玉	곱은옥의 등과 배 또는 옆 부분에 작은 곱은옥 모양의 돌기물이 붙은 것으로 크기는 10cm 내외입니다. 모자곡옥이라고도 합니다. 활석이나 남석으로 만들었으며, 일본의 고훈(古墳) 시대에 유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곱은옥의 등과 배 또는 옆 부분에 작은 곱은옥 모양의 돌기물이 붙은 것으로 크기는 10cm 내외입니다. 모자곡옥이라고도 합니다. 활석이나 남석으로 만들었으며, 일본의 고훈(古墳) 시대에 유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예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과 배 또는 옆에 작은 곱은옥 모양의 돌기물이 붙은 것으로 크기는 10cm 정도이다. 다른 이름으로 모자곡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7개가 발견되었다. 일본 고훈시대에 유행한 것이며 일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야요이계 토기 彌生系土器	광주 신창동 유적과 보성 조성리 유적 등에서 야요이계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왼쪽의 야요이계토기는 저부가 좁고 아가리는 직립하다가 짧게 벌어지는 형태로 야요이 중기의 죠노코시(城ノ越)식 토기와 유사합니다. 오른쪽 토기는 저부가 좁고 몸체는 크게 외반하다가 아가리가 짧게 외반하며, 아가리 아래에 돌은무늬 띠를 한 줄 돌린 것으로 야요이 중기의 수구(須玖)식 토기와 유사합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조성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수구(須玖)식 토기와 유사한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일본 열도와 교류가 활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과 보성 조성리 유적 등에서 야요이계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왼쪽의 야요이계토기는 밑바닥이 좁고 아가리는 직립하다가 짧게 벌어지는 형태로 야요이 중기의 죠노코시(城ノ越)식 토기와 유사합니다. 오른쪽 토기는 밑바닥이 좁고 몸체는 크게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다가 아가리가 짧게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아가리 아래에 돌은무늬 띠를 한 줄 돌린 것으로 야요이 중기의 수구(須玖)식 토기와 유사합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조성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수구(須玖)식 토기와 유사한 야요이계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일본 열도와 교류가 활발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과 보성 조성리 유적이다. 왼쪽의 토기는 밑바닥이 좁고 아가리가 곧게 올라가다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으로 일본 야요이 중기(약 기원전 3세~3세기 중반)의 죠노코시식 토기와 유사하다. 오른쪽 토기는 밑바닥이 좁고 몸체는 크게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다가 아가리가 짧게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아가리 아래에 돌은 무늬 띠를 한 줄 돌린 것을 볼 때 야요이 중기의 수구식 토기와 유사합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세워진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일본과 교류가 활발했음이 추측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6	금동관모 金銅冠帽	<p>2006년 고흥 안동 고분에서 금동관모를 비롯하여 금동신발, 금동귀걸이, 청동거울, 철제갑옷과 쟁 달린 투구, 고리자루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청동 바탕에 금을 입혀 만든 금동관모는 높이가 23.2이며, 고깔 모양의 구조에 금동판을 도려내 잎사귀를 형상화한 무늬를 넣었고, 긴 대롱이 달린 깔때기 모양의 꽃봉오리 장식물이 정수리에 꽂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좌우 양옆에는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장신구(영락)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고 뒷면에는 산(山)자형 판이 붙어 있으며, 위 아래의 테두리는 굵은 못(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p> <p>이런 형태의 금동관모는 백제 중양에서 지방 수장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동안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 익산 입점리 등 백제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만 출토되었습니다. 안동 고분 출토 금동관모는 백제 중양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로, 당시 백제의 영향력이 남해안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2006년 고흥 안동 고분에서 금동관모를 비롯하여 금동신발, 금동귀걸이, 청동거울, 철제갑옷과 쟁 달린 투구, 고리자루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청동 바탕에 금을 입혀 만든 금동관모는 높이가 23.2입니다. 고깔 모양의 구조에 금동판을 도려내 잎사귀를 형상화한 무늬를 넣었고, 긴 대롱이 달린 깔때기 모양의 꽃봉오리 장식물이 정수리에 꽂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좌우에는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장신구(영락)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고 뒷면에는 산(山)자형 판이 붙어 있으며, 위 아래의 테두리는 굵은 못(리벳)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p> <p>이런 형태의 금동관모는 백제 중양에서 지방 수장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동안 서산 부장리, 공주 수촌리, 익산 입점리 등 백제의 주요 거점 지역에서만 출토되었습니다. 안동 고분 출토 금동관모는 백제 중양에서 가장 먼 지역에서 출토된 사례로, 당시 백제의 영향력이 남해안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청동 바탕에 금을 입혀 만든 것으로 높이가 23.2cm이다.</p> <p>2006년 고흥 안동 고분에서 발견되었다. 금동귀걸이, 청동거울, 철제갑옷과 쟁 달린 투구, 고리자루칼 등이 발견되었다. 고깔 모양의 금동관모는 잎사귀 무늬를 넣은 금동판으로 장식하였고, 긴 대롱이 달린 깔때기 모양의 꽃봉오리 장식이 정수리에 꽂혀 있다.</p> <p>좌우에는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장신구가 있던 흔적이 있고 뒤에는 산(山)자형 판이 붙어 있으며, 위와 아래의 테두리는 굵은 못으로 박혀있다.</p> <p>백제 중양에서 지방 수장에게 준 것으로 그동안은 백제의 주요 지역에서만 발견되었었다.</p> <p>금동관모가 발견된 곳 중 고흥 안동은 백제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백제의 영향력이 남해안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7	살포 鐵鏟	<p>살포는 논외 물꼬를 트거나 막는 데 쓰는 농기구로, 긴 막대기 끝에 작은 삽날을 단 형태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물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먼저 물을 대기 위해 발생하는 분쟁을 살포를 지닌 사람이 해결하게 됩니다. 살포는 주로 수장층의 무덤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수장이 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70세 이상의 원로 신하에게 살포가 달린 지팡이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p> <p>고흥 안동 고분에서 출토된 살포는 삽날과 자루 모두 철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65.6cm로 현재까지 발견된 살포 가운데 가장 긴 것입니다.</p>	<p>살포는 논외 물꼬를 트거나 막는 데 쓰는 농기구로, 긴 막대기 끝에 작은 삽날을 단 형태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물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먼저 물을 대기 위해 발생하는 분쟁을 살포를 지닌 사람이 해결했습니다. 살포는 주로 수장층의 무덤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수장이 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70세 이상의 원로 신하에게 살포가 달린 지팡이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p> <p>고흥 안동 고분에서 출토된 살포는 삽날과 자루 모두 철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165.6cm로 현재까지 발견된 살포 가운데 가장 긴 것입니다.</p>	<p>논외 물꼬를 트거나 막는데 사용하는 것이다.</p> <p>긴 막대기 끝에 작은 삽날을 단 모양이다.</p> <p>발견된 곳은 고흥 안동이다.</p> <p>삽날과 자루는 철을 이용해 만들었고 길이가 165.6cm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것이다.</p> <p>농경 사회에서 물의 관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p> <p>서로 먼저 물을 대려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면 살포를 가진 사람이 해결했다.</p> <p>이것은 수장층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장이 농사를 장악하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다.</p>	
28	광주 신창동 유적 출토 식물자료	<p>영산강변 구름의 끝자락에 위치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2천여 년 전 사람들이 먹었던 불에 탄 쌀과 벼씨, 벼껍질을 비롯해 밀, 보리, 팥, 조 등의 곡물과 오이, 삼, 산딸기, 도토리, 가래, 밤 등의 열매와 씨앗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55cm 두께의 벼껍질 압착층이 발굴조사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창동 유적 주변의 습지에서 대규모의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자료들은 그 옛날 신창동 사람들이 야생에서 식량을 채집하고 밭과 논에서 곡식을 재배하는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마련했음을 보여 줍니다.</p>	<p>영산강변 구름의 끝자락에 위치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2천여 년 전 사람들이 먹었던 불에 탄 쌀과 벼씨, 벼껍질을 비롯해 밀, 보리, 팥, 조 등의 곡물과 오이, 삼, 산딸기, 도토리, 가래, 밤 등의 열매와 씨앗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55cm 두께의 벼껍질 압착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창동 유적 주변의 습지에서 대규모의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자료들은 그 옛날 신창동 사람들이 야생에서 식량을 채집하고 밭과 논에서 곡식을 재배하는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마련했음을 보여 줍니다.</p>	<p>2천여 년 전 사람들이 먹었던 불에 탄 쌀과 벼씨, 벼껍질 그리고 밀, 보리, 팥, 조 등의 곡물과 오이, 삼, 산딸기, 도토리, 가래, 밤 등의 열매와 씨앗이 발견되었다.</p> <p>발견된 곳은 영산강변 구름 끝자락에 있는 광주 신창동 유적이다.</p> <p>155cm 두께의 벼껍질 압착층이 발견된 것을 볼 때 대규모의 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p> <p>그 옛날 신창동 사람들이 식량을 채집하고 밭과 논에서 곡식을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9	평괭이 木鍬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괭이, 따비, 낫자루, 절구공이 등 농사지를 때 사용되는 다양한 목제 농기구도 출토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땅을 파고 고르는 데 사용하는 ‘평괭이’라는 농기구입니다. 괭이는 땅에 직접 닿는 날과 손으로 잡는 자루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나무판자의 한쪽을 얇게 다듬어 날로 만들고 위쪽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자루와 결합하면 손잡이가 달린 괭이가 됩니다. 이 평괭이는 자루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자루 끝부분의 일부를 벌리고 그 사이에 썰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썰기를 박는 방법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괭이, 따비, 낫자루, 절구공이 등 농사지를 때 사용되는 다양한 목제 농기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땅을 파고 고르는 데 사용하는 ‘평괭이’라는 농기구입니다. 괭이는 땅에 직접 닿는 날과 손으로 잡는 자루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나무판자의 한쪽을 얇게 다듬어 날로 만들고 위쪽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자루와 결합하면 손잡이가 달린 괭이가 됩니다. 이 평괭이는 자루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자루 끝부분의 일부를 벌리고 그 사이에 썰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썰기를 박는 방법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땅을 파고 고르는 데 사용하는 농구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며 괭이, 따비, 낫자루, 절구공이 등 여러 가지 목제 농기구와 함께 발견되었다. 직사각형 나무판자의 한쪽을 얇게 다듬어 날로 만들고 위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자루와 결합하면 손잡이가 달린 괭이가 된다. 이것은 단단히 결합하기 위해 자루 끝의 일부를 벌리고 그사이에 썰기를 박았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독특한데 이것은 광주 신창동에서만 발견된다.	
30	가리 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싸리나무로 엮어 만든 가리입니다. 물을 뺄 논이나 저수지에서 가리로 바닥을 눌러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아래위가 뚫려 있는 형태이며, 위쪽은 가장자리를 따라 천으로 감쌌고 아무런 장치 없는 아랫부분을 그대로 땅에 꽂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로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에도 가리치기 또는 가래치기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싸리나무로 엮어 만든 가리입니다. 물을 뺄 논이나 저수지에서 가리로 바닥을 눌러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아래위가 뚫려 있는 형태이며, 위쪽은 가장자리를 따라 천으로 감쌌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아랫부분을 그대로 땅에 꽂았습니다. 물고기나 수산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도구는 전 세계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리치기 또는 가래치기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싸리나무로 엮어 만든 것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이다. 물을 뺄 논이나 저수지에 이것으로 바닥을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건져내는 데 사용한다. 아래와 위가 뚫려 있는 모양이며, 위쪽은 가장자리를 천으로 감쌌고 아래는 그대로 땅에 꽂아서 사용한다. 물고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이와 비슷한 도구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1	시루와 항아리 甑・ 甕形土器	<p>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들기 쉽도록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항아리나 독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음식을 넣은 시루를 얹고 불을 지펴 끓이면 수증기가 구멍을 통해 올라가면서 음식이 익게 됩니다. 토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끓은 흔적 등은 당시의 음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전해 주고, 바깥 면의 그을음은 화덕이나 부뚜막 등의 조리 환경을 알려 줍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는 바깥 면 전체에 그을음이 많이 묻어 있어 화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p>	<p>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한 시루와 항아리입니다. 시루는 아가리가 넓고 바닥에는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들기 쉽도록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항아리나 독에 물을 붓고 그 위에 음식을 넣은 시루를 얹어 놓습니다. 불을 지펴 끓이면 수증기가 구멍을 통해 올라가면서 음식이 익습니다.</p> <p>토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끓은 흔적 등은 당시의 음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려 주고, 바깥 면의 그을음은 화덕이나 부뚜막 등의 조리 환경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는 바깥 면 전체에 그을음이 많이 묻어 있어 화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p>	<p>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다. 시루는 아가리가 넓고 바닥에 구멍이 있어 끓는 물의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다. 몸통에는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들기 간편하다.</p> <p>항아리나 독에 물을 붓고 시루를 얹어 시루를 었는다.</p> <p>그리고 불을 피워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구멍으로 올라가 시루의 음식이 익는다. 토기에 남아 있는 음식의 흔적은 사용했을 때 음식의 정보와 음식 조리 환경 등을 알 수 있다.</p>	
32	수레바퀴	<p>수레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는 운송 수단입니다. 수레는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많은 사람과 물건을 더 멀리, 짧은 시간 안에 옮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명품입니다.</p> <p>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2천여 년 전 수레를 움직이던 수레바퀴가 출토되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축을 이루는 바퀴통, 바퀴를 지지하는 바퀴살 및 이것을 끼우는 바퀴테 등을 복원하면, 22개의 바퀴살이 있는 지름 160cm 가량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바퀴통과 바퀴살 일부에는 검은 옷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레를 끄는 말의 고삐가 통과하는 부분인 가로걸이대도 확인되어 이 수레는 말 한 필이 끄는 수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수레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는 운송 수단입니다. 수레는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많은 사람과 물건을 더 멀리, 짧은 시간 안에 옮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명품입니다.</p> <p>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2천여 년 전에 사용했던 수레바퀴가 출토되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축을 이루는 바퀴통, 바퀴를 지지하는 바퀴살 및 이것을 끼우는 바퀴테 등을 복원하면, 22개의 바퀴살이 있는 지름 160cm 가량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바퀴통과 바퀴살 일부에는 검은 옷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레를 끄는 말의 고삐가 통과하는 부분인 가로걸이대도 확인되어 이 수레는 말 한 필이 끄는 수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수레는 짐을 옮기거나 사람이 타는 운송 수단이다.</p> <p>이것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을 힘들지 않게 멀리 짧은 시간에 옮길 수 있게 해 매우 중요한 발명품이다.</p> <p>2천여 년 전 사용한 수레의 바퀴가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이다.</p> <p>수레바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면 바퀴살이 22개이고 지름은 160cm가 된다.</p> <p>이것은 말 한 필이 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3	원통 모양 칠기 筒形漆器	가볍고 조적이 치밀한 오리나무로 만든 긴 컵 모양의 나무그릇입니다. 높이 19cm, 바닥 지름 8cm로 약 500ml의 액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칠기는 오리나무 중심부를 파낸 원통형의 몸통에 둥글게 깎은 얇은 바닥판을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자른 방향에 따라 나무의 수축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몸통이 수축하면서 바닥판을 단단하게 고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작 기술을 ‘조임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은색의 옷으로 칠한 그릇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4~6회 반복하여 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칠기는 2천 년 전의 목기 제작 기법과 옷칠 기술을 함께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볍고 조적이 치밀한 오리나무로 만든 긴 컵 모양의 나무그릇입니다. 높이 19cm, 바닥 지름 8cm로 약 500ml의 액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칠기는 오리나무 중심부를 파낸 원통형의 몸통에 둥글게 깎은 얇은 바닥판을 끼워서 만들었습니다. 자른 방향에 따라 나무의 수축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몸통이 수축하면서 바닥판을 단단하게 고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작 기술을 ‘조임기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은색의 옷으로 칠한 그릇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4~6회 반복하여 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칠기는 2천 년 전의 목기 제작 기법과 옷칠 기술을 함께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리나무로 만든 긴 컵 모양의 나무 그릇(나무로 만든 긴 컵)이다. 높이 19cm, 바닥 지름 8cm로 약 500mL의 액체를 담을 수 있다. 오리나무를 중심부를 파서 원통형의 몸통에 둥글고 얇은 판을 바닥에 끼워 만들었다. 이것을 만든 방법은 ‘조임기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나무를 자른 방향에 따라 나무의 수축 정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몸통이 수축하면서 바닥판을 단단하게 고정하게 된 것이다. 검은색 옷을 4~6회 덧칠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2천 년 전의 목기 제작 기법과 옷칠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34	옷칠토기 陶胎土器	옷은 광택, 방수, 견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기, 나무 등 다양한 재질에 이용되었습니다. 토기에 옷칠한 것은 옷칠토기, 대를 잘게 쪼개어 적당한 모양으로 짠 것에 옷칠한 것은 남태칠기, 나무에 옷칠한 것은 목칠기라고 합니다. 옷칠토기는 잘 구운 토기의 표면을 매끈하게 손질한 다음 여러 차례 옷을 칠하여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토기는 광택에 의한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러 번 칠할수록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대부분 토기 표면에만 칠하지만, 때로는 아가리 안쪽도 칠했습니다.	옷은 광택, 방수, 견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기, 나무 등 다양한 재질에 사용되었습니다. 토기에 옷칠한 것은 옷칠토기, 대를 잘게 쪼개어 적당한 모양으로 짠 것에 옷칠한 것은 남태칠기, 나무에 옷칠한 것은 목칠기라고 합니다. 옷칠토기는 잘 구운 토기의 표면을 매끈하게 손질한 다음 여러 차례 옷을 칠하여 완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토기는 광택뿐만 아니라 방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여러 번 칠할수록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집니다. 대부분 토기 표면에만 칠하지만, 때로는 아가리 안쪽도 칠했습니다.	옷을 바르면 광택, 방수, 견고 등의 효과가 있어 토기, 나무 등 다양한 것에 사용한다. 토기에 옷칠하면 ‘옷칠토기’,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짠 것에 옷을 칠한 것을 ‘남태칠기’, 나무에 옷칠한 것을 ‘목칠기’라 한다. 옷칠토기는 토기의 표현을 매끄럽게 한 후 옷을 여러 차례 칠하여 만든다. 옷칠을 하면 광택과 방수 기능을 가진 토기가 되고 여러 번 칠할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진다. 대부분 토기 표면에 칠하고 때로는 아가리 안쪽도 칠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5	바디 緯打具	<p>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바디’입니다. 바디는 베를 짤 때 드리워진 날실(세로 방향의 실) 사이의 씨실을 내려 눌러 춤춤하게 해 주는 베틀 부속물입니다. 실제로 이 바디의 한쪽 면에는 날실에 굽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이 바디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베틀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실감개, 가락바퀴, 비단 및 삼베 조각 등도 당시의 직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입니다.</p>	<p>바디는 베를 짤 때 드리워진 날실(세로 방향의 실) 사이의 씨실을 내려 눌러 춤춤하게 해 주는 베틀 부속물입니다. 실제로 이 바디의 한쪽 면에는 날실에 굽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바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베틀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실감개, 가락바퀴, 비단 및 삼베 조각 등도 당시의 직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p>	<p>이것은 베를 짤 때 날실(세로 방향의 실) 사이의 씨실(가로 방향의 실)을 눌러 춤춤하게 해주는 ‘바디’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고, 실감개, 가락바퀴, 비단 및 삼베 조각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것의 한쪽 면에는 날실에 굽힌 자국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바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베틀의 구조와 직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p>	
36	실감개 絲捲	<p>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실감개가 출토되었습니다. 하나는 H 모양이며, 다른 하나는 긴 사각형 나무 양쪽 끝을 오목하게 도려낸 모양입니다. H 모양 실감개는 많은 양의 실을 감을 수 있는 것이며, 긴 사각형의 실감개는 실을 베틀에 걸기 위한 것입니다.</p>	<p>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실감개가 출토되었습니다. 하나는 H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긴 사각형 나무 양쪽 끝을 오목하게 도려낸 모양입니다. H 모양 실감개는 많은 양의 실을 감을 수 있는 것이고 긴 사각형의 실감개는 실을 베틀에 걸기 위한 것입니다.</p>	<p>이것은 베틀의 실감개로 두 가지 종류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다. H모양의 실감개는 실을 많이 감을 수 있다. 긴 사각형 모양의 실감개는 나무 양쪽 끝을 도려낸 모양으로 실을 베틀에 걸기 위한 것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7	발화구 發火具	발화구는 불 피우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발화구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발화구는 발화대, 발화막대, 발화막대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화대에는 여러 개의 둥근 홈이 파여 있으며, 이 홈에 발화막대의 한쪽 끝을 넣어 회전시키며 마찰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발화대는 단단한 참나무를, 발화막대는 그보다 무른 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발화막대집은 나무 안쪽을 파내어 발화막대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발화막대를 편리하게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화구는 불 피우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발화구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발화구는 발화대, 발화막대, 발화막대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화대에는 여러 개의 둥근 홈이 파여 있으며, 이 홈에 발화막대의 한쪽 끝을 넣어 회전시키며 마찰하여 불을 피웠습니다. 발화대는 단단한 참나무를, 발화막대는 그보다 무른 나무를 이용했습니다. 발화막대집은 나무 안쪽을 파내어 발화막대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발화막대를 편리하게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것이다. 발화구는 발화대와 발화막대, 발화막대집으로 구성된다. 발화대 나무는 발화막대보다 더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며 여러 개의 둥근 홈이 파여 있다. 발화막대의 한쪽 끝을 발화대에 넣어 회전시키며 마찰하여 불을 피웠다. 발화막대집은 나무 안쪽을 파내어 발화막대를 보관하거나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다.	
38	관솔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많은 양의 관솔이 출토되었습니다. 관솔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웅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촛불이나 등불 대신으로 썼으며 최근까지도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 크게 변치 않았음을 알려 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관솔이 출토되었습니다. 관솔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웅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촛불이나 등불 대신으로 썼으며 최근까지도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 크게 변치 않았음을 알려 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웅이 부분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이며 많은 양이 발견되었다. 송진은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촛불이나 등불 대신 썼으며 최근까지 불쏘시개로 사용한다.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은 과거와 오늘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좋은 자료이다.	
39	흙으로 만든 귀걸이 耳栓	흙을 둥근 판 모양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귓볼을 길게 찢은 다음 끼워 넣어 장식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지름 2cm 정도의 것이 많이 출토되었지만, 민족지 자료를 보면 지름 10cm에 달하는 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습니다.	흙을 둥근 판 모양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귓볼을 길게 찢은 다음 끼워 넣어 장식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는 지름 2cm 정도의 것이 많이 출토되었지만, 민족지 자료를 보면 지름 10cm에 달하는 큰 것도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습니다.	흙을 둥근 판 모양으로 만든 귀걸이이다. 발견된 곳은 광주 신창동 유적으로 지름 2cm 정도의 것이 많이 발견되었다. 지름 10cm인 큰 것도 있다. 귓볼을 길게 찢은 다음 끼워 넣어 장식하며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바람개비 문양칠기 巴文漆器	<p>등근 나무판 앞면 중앙에는 회전하는 바람개비무늬를, 가장자리에는 태양을 모티브로 한 톱니날무늬를 장식한 칠기로, 이러한 무늬는 청동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면 전체에 옷칠을 한 뒤 무늬 이외의 부분을 파내어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박지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뒷면 중앙부에 돌출부를 만들어 끈으로 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칠기는 농경 의례나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등근 나무판 앞면 중앙에는 회전하는 바람개비무늬를, 가장자리에는 태양의 모양을 본뜬 톱니날무늬를 장식한 칠기입니다. 이러한 무늬는 청동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면 전체에 옷칠을 한 뒤, 무늬 이외의 부분을 파내어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박지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뒷면 중앙부에 돌출부를 만들어 끈으로 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칠기는 농경 의례나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등근 나무판 앞면 중앙에 회전하는 바람개비 무늬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태양의 모양을 본뜬 톱니날무늬를 장식한 칠기이다.</p> <p>아마도 청동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p> <p>앞면에 옷칠하고 무늬 없는 곳을 파내어 무늬를 눈에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 ‘박지기법’으로 만들었다.</p> <p>뒷면 중앙부에 돌출부가 있어 끈으로 걸 수 있게 했다.</p> <p>이런 것은 농경의례나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p>	
41	현악기 絃樂器	<p>이 악기는 줄을 타거나 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보통 현악기는 줄을 고정하는 현고정부, 소리를 내는 탄음부, 줄을 거는 구멍이 뚫린 현미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탄음부와 현미부만 남아 있고, 현고정부에는 두 개의 구멍만 있습니다. 이 현악기는 뱃나무로 만들었으며, 모두 10개의 줄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악기로 슬(瑟)이 있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 현악기 축(筑)과 비슷하다. 이것을 타면 소리와 곡조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이 기사와 같은 시기의 실물 자료입니다.</p>	<p>이 악기는 줄을 타거나 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보통 현악기는 줄을 고정하는 현고정부, 소리를 내는 탄음부, 줄을 거는 구멍이 뚫린 현미부로 구분합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탄음부와 현미부만 남아 있고, 현고정부에는 두 개의 구멍만 있습니다. 이 현악기는 뱃나무로 만들었으며, 모두 10개의 줄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악기로 슬(瑟)이 있는데 그 모양이 중국의 현악기 축(筑)과 비슷하다. 이것을 타면 소리와 곡조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이 기사와 같은 시기의 실물 자료입니다.</p>	<p>이 악기는 줄을 타거나 켜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p> <p>현악기는 줄을 고정하는 현고정부, 소리를 내는 탄음부, 줄을 거는 구멍이 뚫린 현미부로 구분한다.</p> <p>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이 세 부분 중 탄음부와 현미부만 남아 있다.</p> <p>현재 고정부에는 두 개의 구멍만 있다.</p> <p>이 현악기는 뱃나무로 만들었고, 모두 10개의 줄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p> <p>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슬”이라는 악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이 기록과 같은 시기의 실물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2	점뼈 卜骨	<p>점뼈는 동물 뼈에 구멍을 뚫거나 불에 달군 도구로 지저서 생긴 흔적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도구입니다. 주로 멧돼지나 사슴의 견갑골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의 타이가 숲에 사는 유목민들은 이것으로 점을 칩니다.</p> <p>점뼈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일본 규슈 지방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출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의 조개더미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사천 늑도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 유적 주변에서 많이 출토되는 점뼈는 집단의 큰일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고 단결을 비는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p>	<p>점뼈는 동물 뼈에 구멍을 뚫거나 불에 달군 도구로 지저서 생긴 흔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점치는 도구입니다. 주로 멧돼지나 사슴의 어깨뼈를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의 타이가 숲에 사는 유목민들은 이것으로 점을 칩니다.</p> <p>점뼈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일본 규슈 지방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출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의 조개더미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사천 늑도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생활 유적 주변에서 많이 출토되는 점뼈는 집단의 큰일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고 단결을 비는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동물 뼈에 구멍을 뚫거나 불에 달군 도구로 지저서 생긴 흔적을 보고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점뼈이다. 주로 멧돼지나 사슴의 어깨뼈를 이용했다.</p> <p>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의 타이가 숲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점을 친다.</p> <p>점뼈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일본 규슈 지방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출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의 조개더미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사천 늑도 유적 등에서 발견됐다.</p> <p>점뼈는 집단의 큰일뿐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고 단결을 비는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p>	
43	칼집 劍鞘	<p>칼집은 나무껍질, 가죽,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를 파낸 두 장의 나무판을 마주 대고 옷으로 접착한 뒤 일부분을 금속판으로 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표면을 검은색 옷으로 칠했습니다. 칼집은 칼을 넣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때때로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이 칼집 역시 표면을 검은색 옷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금속구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소유한 사람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칼집은 나무껍질, 가죽, 나무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를 파낸 두 장의 나무판을 마주 대고 옷으로 접착한 뒤 일부분을 금속판으로 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을 검은색 옷으로 칠했습니다. 칼집은 칼을 넣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때때로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물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이 칼집 역시 표면을 검은색 옷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금속구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소유한 사람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이 칼집은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되었다.</p> <p>이것은 중앙부를 파낸 두 장의 나무판을 마주 대고 옷으로 접착한 뒤 일부분을 금속판으로 고정했다. 그리고 표면을 검은색 옷으로 칠했다.</p> <p>소유자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4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p>부처를 상징하는 사리를 담은 사리함과 사리병을 비롯해 사리를 봉안하는 모든 장치를 사리장엄구라고 합니다. 사리함 또는 사리병은 금속이나 유리·수정 등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넣는 내함과 외함은 금·은·금동으로 만든 다음 불법을 상징하거나 수호하는 불상, 보살상, 신장상, 비천상, 당초무늬, 보상화무늬 등으로 주변을 장식했습니다.</p> <p>이 사리장엄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 절터에 있던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탑의 건립 시기는 고려 전기로 추정됩니다. 석탑 1층 몸돌 위쪽의 사리 봉안처에 들어 있던 이 사리장엄구는 직사각형의 금동함 속 바닥에 연꽃 장식을 넣고 그 위에 금동사리병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전통 의식에 따라 상징적으로 나무로 만든 작은 탑들을 안치했습니다. 대나무 조각은 유사한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경전의 내용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p>	<p>부처를 상징하는 사리를 담은 사리함과 사리병을 포함하여 사리를 봉안하는 모든 장치를 사리장엄구라고 합니다. 사리함 또는 사리병은 금속이나 유리·수정 등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넣는 내함과 외함은 금·은·금동으로 만든 다음 불법을 상징하거나 수호하는 불상, 보살상, 신장상, 비천상, 당초무늬, 보상화무늬 등으로 주변을 장식했습니다.</p> <p>이 사리장엄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 절터에 있던 오층석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탑의 건립 시기는 고려 전기로 추정됩니다. 석탑 1층 몸돌 위쪽의 사리 봉안처에 들어 있던 이 사리장엄구는 직사각형의 금동함 속의 바닥에 연꽃 장식을 넣고 그 위에 금동사리병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전통 의식에 따라 상징적으로 나무로 만든 작은 탑들을 안치했습니다. 대나무 조각은 이와 비슷한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경전의 내용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유물은 사리장엄구이다.</p> <p>사리장엄구란 부처를 상징하는 사리를 담은 사리함과 사리병 등 사리를 봉안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p> <p>이 사리장엄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흥동 절터에 있던 오층석탑에서 발견됐다.</p> <p>탑은 고려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p> <p>석탑 1층 몸돌 위쪽 사리 봉안처에 들어 있던 이 사리장엄구는 직사각형 금동함 속의 바닥에 연꽃 장식을 넣고 그 위에 금동사리병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p> <p>또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에 따라 나무로 만든 작은 탑들을 안치했다.</p> <p>대나무 조각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경전의 내용을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5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p>성거사 절터로 전해지는 광주공원에 있는 광주 서오층석탑의 2층 몸돌 사리 봉안처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투각의 여의두무늬로 장식된 난간이 있는 받침대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네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앙의 연꽃 금동 받침 위에 62과의 사리를 담은 은제 사리단지를 놓았습니다. 뚜껑 역할을 하는 외부 장치는 사각지붕에 벽체 있는 건물 형태로 지붕의 처마에 풍경을 달고 그 위는 작은 꽃으로 장식했으며, 네 벽면에 판으로 눌러 만든 보살상을 장식하여 화려한 면모를 자랑합니다.</p>	<p>성거사 절터로 전해지는 광주공원에 있는 광주 서오층석탑의 2층 몸돌 사리 봉안처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투각의 여의두무늬로 장식된 난간이 있는 받침대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네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연꽃 금동 받침 위에는 62과의 사리를 담은 은제 사리단지를 놓았습니다. 뚜껑 역할을 하는 외부 장치는 사각지붕에 벽이 있는 건물 형태입니다. 지붕의 처마에 풍경을 달고 그 위는 작은 꽃으로 장식했으며 네 벽면에 판으로 눌러 만든 보살상을 장식하여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p>	<p>이 사리장엄구는 성거사 절터인 광주공원에 있는 광주 서오층석탑의 2층 몸돌 사리 봉안처에서 발견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의 양식을 띠고 있다. 여의두 무늬로 장식된 난간이 있는 받침대에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네 모서리에 있다. 또 중앙의 연꽃 금동받침 위에는 62과의 사리를 담은 은제 사리단지를 놓았다. 뚜껑 역할을 하는 외부 장치에 사각지붕에 벽이 있는 건물 형태이다. 지붕의 처마에 풍경을 달고 그 위에 작은 꽃으로 장식했으며 네 벽면에 판으로 눌러 만든 보살상을 장식하여 화려한 모습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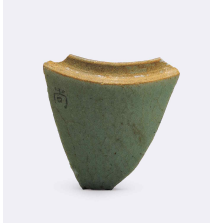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6	범종 泰安二年銘 靑銅梵鐘	<p>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종은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범종은 용 모양의 고리인 용뉴, 용뉴 목 뒷부분에 있는 음향 효과를 위한 음통, 몸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에는 당초무늬 등을 새긴 띠가 위아래로 있고 그 사이에 비천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범종은 음통의 표현이 섬세하고 몸체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비천상의 모습이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어 고려 시대 범종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p> <p>이 범종 한가운데에는 ‘태안 2년(1086년)에 절의 주지 스님 등이 발원하여 장생사 금종을 만드는 데 50근의 구리가 들어갔다’ - “長生寺 金鍾重五十斤/棟梁寺主 倡漢/京 □正春元施納/十六斤泰安二年十二月日 (장생사금종중오십근/동량사주□창미/경성□정춘원시납/십육근태안이년십이월일)” -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제작 시기와 조성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위패 모양의 명패에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뜻의 ‘聖壽天長(성수천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p>	<p>범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종입니다. 범종은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범종은 용 모양의 고리인 용뉴, 용뉴 목 뒷부분에 있는 음향 효과를 위한 음통, 몸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에는 당초무늬 등을 새긴 띠가 위아래로 있고 그 사이에 비천 등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범종은 음통의 표현이 섬세하고 몸체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비천상의 모습이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 시대 범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p> <p>이 범종 한가운데에는 ‘태안 2년(1086년)에 절의 주지 스님 등이 발원하여 장생사 금종을 만드는 데 50근의 구리가 들어갔다’ - “長生寺 金鍾重五十斤/棟梁寺主 倡漢/京 □正春元施納/十六斤泰安二年十二月日 (장생사금종중오십근/동량사주□창미/경성□정춘원시납/십육근태안이년십이월일)” -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제작 시기와 조성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위패 모양의 명패에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뜻의 ‘聖壽天長(성수천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p>	<p>이 종은 사찰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범종이다. 이 범종은 용모양 고리 목 뒷부분에 있는 음통의 표현이 섬세하고 몸체에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비천상의 모습이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다.</p> <p>이는 고려시대 범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p> <p>범종 한가운데에 태안 2년에 절의 주지 스님 등이 발원하여 장생사 금종을 만드는 데 50근의 구리가 들어갔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제작시기와 조성 경위를 알 수 있다.</p> <p>위패 모양의 명패에는 임금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성수천장’이라는 글자가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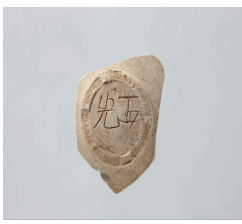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7	여래 · 보살 · 나한상 如來 · 菩薩 · 羅漢像	<p>서봉사는 무등산 천왕봉 북동쪽인 담양군 정곡리 일대에 있었던 절입니다. 『세종실록』이나 『해남읍지(海南邑誌)』, 『창평군읍지(昌平郡邑誌)』 등에 따르면 서봉사는 조선 전기 이전에 창건되어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20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절터에서 여래좌상 1구, 보살상 1구, 나한상 14구, 동자상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백회(白灰) 계통의 무른 돌로 만들었으며, 붉은 칠로 채색된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p> <p>여래좌상은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 옷을 걸치고 있으며,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화려한 영락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40cm 안팎의 좌상인 나한상 14구는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채 명상에 잠겨 있는 표정입니다. 코는 도드라져 있으며, 미소를 머금은 턱은 둥글지만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입고 있는 가사는 Y자형이며, 주름은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의 나한상을 조성한 것은 나한 신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나한의 신통력으로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이나 장수의 복을 기원하는 나한 신앙이 유행했습니다.</p>	<p>서봉사는 무등산 천왕봉 북동쪽인 담양군 정곡리 일대에 있었던 절입니다. 『세종실록』이나 『해남읍지(海南邑誌)』, 『창평군읍지(昌平郡邑誌)』 등에 따르면 서봉사는 조선 전기 이전에 만들어져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20세기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절터에서 여래좌상 1구, 보살상 1구, 나한상 14구, 동자상 1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백회(白灰) 계통의 무른 돌로 만들었으며, 붉은 칠로 채색된 흔적도 엿볼 수 있습니다.</p> <p>여래좌상은 양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식 옷을 걸치고 있으며,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화려한 영락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40cm 안팎의 좌상인 나한상 14구는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채 명상에 잠겨 있는 표정입니다. 코는 도드라져 있으며, 미소를 머금은 턱은 둥글지만 생동감이 살아 있습니다. 입고 있는 가사는 Y자형이며, 주름이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의 나한상을 조성한 것은 나한 신앙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나한의 신통력으로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이나 장수의 복을 기원하는 나한 신앙이 유행했습니다.</p>	<p>이 유물들은 서봉사 절터에서 발견되었다.</p> <p>서봉사는 담양군 정곡리 일대에 있던 절로 조선전기 이전에 만들어져 조선후기까지 유지되다가 20세기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p> <p>이 절터에서 여래좌상 1구, 보살상 1구, 나한상 14구, 동자상 1구가 발견되었다. 모두 백회 계통의 무른 돌로 만들었고 붉은 칠로 채색된 흔적도 있다.</p> <p>여래좌상은 양 어깨를 모두 덮은 옷을 걸치고 있고, 보살상은 보관을 쓰고 화려한 영락 장식을 하고 있다.</p> <p>나한상 14구는 높이 40cm 안팎의 좌상으로 눈을 감거나 반쯤 뜬 채 명상에 잠긴 표정이다. 코는 도드라져 있고 미소를 머금은 턱은 둥글지만 생동감이 있다.</p> <p>입고 있는 가사는 Y자형이고 주름이 있는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었다.</p> <p>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의 나한상은 나한 신앙과도 연관이 있다.</p> <p>조선시대에는 나한의 신통력으로 죽은 사람의 극락왕생이나 장수의 복을 기원하는 나한 신앙이 유행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8	탑의 내력을 새긴 돌 塔誌石	<p>장흥에 위치한 보림사는 759년 원표(元表) 대덕이 세운 가지산문에서 비롯된 사찰입니다. 금당인 대적광전 앞에는 석등과 남북에 각각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1934년 석탑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탑지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탑지석은 남석(蠟石)으로 만들었고, 남탑지석은 사각형 판, 북탑지석은 육방체이며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보림사의 남·북 삼층석탑이 870년 헌안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891년에 남탑에 사리 7과를 봉안했습니다. 북탑지석에는 1478년 탑을 중수한 사실, 인근의 쌍봉사와 무위사에서 열린 법회, 무위사의 주존불을 조성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탑지석에도 1478년과 1684년에 탑을 중수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p> <p>이 탑지석을 통해서 탑의 조성 연대 뿐만 아니라 9세기에는 신라 왕실이 주도하여 원당과 원탑을 다수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림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858), 보조선사탑비(884)와 더불어 당시 선종 사찰과 통일신라 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장흥에 위치한 보림사는 759년 원표(元表) 대덕이 세운 가지산문에서 비롯된 사찰입니다. 금당인 대적광전 앞에는 석등을 비롯하여 남북에 각각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1934년 석탑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탑지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탑지석은 남석(蠟石)으로 만들었고, 남탑지석은 사각형 판, 북탑지석은 육방체이며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진 글에는 보림사의 남·북 삼층석탑이 870년 헌안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워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891년에 남탑에 사리 7과를 봉안했습니다. 북탑지석에는 1478년 탑을 중수한 사실, 인근의 쌍봉사와 무위사에서 열린 법회, 무위사의 주존불을 조성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탑지석에도 1478년과 1684년에 탑을 중수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p> <p>이 탑지석을 통해서 탑의 조성 연대 뿐만 아니라 9세기에는 신라 왕실이 주도하여 원당과 원탑을 다수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림사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858), 보조선사탑비(884)와 더불어 당시 선종 사찰과 통일신라 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입니다.</p>	<p>탑의 내력을 적은 탑지석이다.</p> <p>장흥에 있는 보림사 금당인 대적광전 앞에는 석등과 남북에 각각 석탑이 있다. 1934년 이 석탑에서 사리장엄구와 탑지석이 발견됐다.</p> <p>탑지석은 남석(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광물들)으로 만들었고, 남탑지석은 사각형 판, 북탑지석은 육방체이며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다.</p> <p>새겨진 글은 보림사의 남·북 삼층석탑을 870년 헌안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는 내용이다.</p> <p>이후 891년에 남탑에 사리 7과를 봉안했다.</p> <p>북탑지석에는 1478년 탑을 중수한 사실, 인근의 쌍봉사와 무위사에서 열린 법회, 무위사의 주존불을 조성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p> <p>남탑지석에도 1478년과 1684년에 탑을 중수한 사실이 적혀있다.</p> <p>이 탑지석을 통해 탑의 조성 연대뿐만 아니라 9세기에 신라 왕실이 주도하여 원당과 원탑을 다수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또 당시 선종사찰과 통일신라 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9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 삼존상 靑銅佛龕・ 阿彌陀如來 三尊像	<p>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층석탑의 1층 지붕돌 안 사리구 봉안처에서 발견된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상입니다.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를 없애고 소원을 들어 준다는 관음보살과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한 조를 이룬 아미타삼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형식입니다. 특히 지장보살의 머리에 쓴 각진 두건은 15세기의 특징을 보여 줍니다.</p> <p>2015년 4월 22일 지장보살상의 몸 안에서 성화 4년, 즉 1468년에 쓴 발원문이 발견되어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과 함께 보물 제18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발원문은 4장씩 두 벌로 총 8장인데, 순천 별양리 죽사의 승려를 비롯한 277명의 시주자가 극락왕생을 위해 삼존불을 만들어 봉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리 4과, 수정 구슬 등도 확인되었습니다.</p>	<p>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층석탑의 1층 지붕돌 안 사리구 봉안처에서 발견된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상입니다.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를 없애고 소원을 들어 준다는 관음보살과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한 조를 이룬 아미타삼존은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형식입니다. 특히 지장보살의 머리에 쓴 각진 두건은 15세기의 특징을 보여 줍니다.</p> <p>2015년 4월 22일 지장보살상의 몸 안에서 성화 4년, 즉 1468년에 쓴 발원문이 발견되어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과 함께 보물 제18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발원문은 4장씩 두 벌로 총 8장인데, 순천 별양리 죽사의 승려를 비롯한 277명의 시주자가 극락왕생을 위해 삼존불을 만들어 봉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리 4과, 수정 구슬 등도 확인되었습니다.</p>	<p>이 청동불감과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전남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층석탑의 1층 지붕돌 안 사리구 봉안처에서 발견되었다.</p> <p>아미타삼존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아미타여래와 중생의 고뇌를 없애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음보살과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한 조를 이룬 것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형식이다.</p> <p>특히 지장보살 머리에 쓴 각진 두건은 15세기의 특징을 보여준다.</p> <p>2015년 4월 22일 지장보살상의 몸 안에서 1468년에 쓴 발원문이 발견되어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과 함께 보물 제1874호로 지정되었다.</p> <p>발원문은 총 8장인데 순천 별양리 죽사의 승려를 비롯한 277명의 시주자가 극락왕생을 위해 삼존불을 만들어 봉안한다는 내용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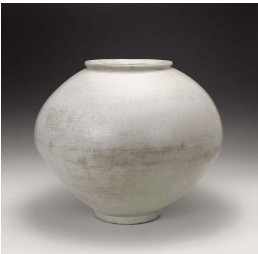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0	사리장엄구 舍利莊嚴具	<p>영암 월출산의 구정봉 아래 있는 절터에서 1955년 ‘용암사’ 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동국여지승람』 기록과 동일한 절임이 밝혀졌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절의 남동쪽에는 ‘탑봉’ 이라는 자연 암반 위에 2단의 기단과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탑이 있었습니다. 풍수도참설에 따라 부처의 힘으로 산천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이 사리갯춤은 1966년 석탑이 무너져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층 기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후대에 탑을 다시 복원하면서 청자 사리호 1점, 금동지장보살좌상 1점, 청자 대접 1점, 사리 32과, 첩편 11점 등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p>	<p>영암 월출산의 구정봉 아래 있는 절터에서 1955년 ‘용암사’ 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동국여지승람』 기록과 동일한 절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절의 남동쪽에는 ‘탑봉’ 이라는 자연 암반 위에 2단의 기단과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탑이 있었습니다. 풍수도참설에 따라 부처의 힘으로 산천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p> <p>이 사리갯춤은 1966년 석탑이 무너져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층 기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후대에 탑을 다시 복원하면서 청자 사리호 1점, 금동지장보살좌상 1점, 청자 대접 1점, 사리 32과, 첩편 11점 등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p>	<p>이것은 사리갯춤이다.</p> <p>영암 월출산의 용암사라는 절터의 남동쪽에 자연 암반 위에 2단의 기단과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탑인 ‘탑봉’ 이 있었다.</p> <p>부처의 힘으로 산천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 초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p> <p>1966년 석탑이 무너져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층 기단에서 이 사리갯춤을 발견했다.</p> <p>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후대에 탑을 복원하면서 청자 사리호 1점, 금동지장보살좌상 1점, 청자 대접 1점, 사리 32과, 첩편 11점 등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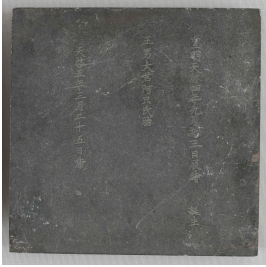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1	강진의 청자 康津의 靑磁	<p>전라남도 강진군은 고려 시대 청자 생산의 중심지로서 188개소에 달하는 청자 가마터가 확인되어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의 용운리 가마터에 대한 발굴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음각 및 양각 청자는 물론 상감청자에 이르는 고려 최고 전성기의 청자를 제작한 가마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굴뚝과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던 용운리 청자 가마는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옥외전시장에 이전·복원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국립광주박물관은 삼흥리 청자 가마터 5기와 토기 가마터 9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때 보물 제1023호 상약국(尙藥局)이 새겨진 청자합과 동일한 글자가 새겨진 청자합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p>	<p>전라남도 강진군은 고려 시대 청자 생산의 중심지로서 188개소에 달하는 청자 가마터가 확인되어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진의 용운리 가마터에 대한 발굴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음각 및 양각 청자는 물론 상감청자에 이르는 고려 최고 전성기의 청자를 제작한 가마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운리 청자 가마는 굴뚝과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으며,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옥외전시장에 이전·복원되어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삼흥리 청자 가마터 5기와 토기 가마터 9기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때 보물 제1023호 상약국(尙藥局)이 새겨진 청자합과 동일한 글자가 새겨진 청자합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p>	<p>전남 강진군은 고려시대 청자생산의 중심지로서 청자 가마터가 18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 제68호로 지정되었다.</p> <p>국립중앙박물관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강진 용운리 가마터 발굴을 진행했다.</p> <p>그 결과 이 가마가 10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음각 및 양각 청자는 물론 상감청자에 이르는 고려 최고의 전성기의 청자를 제작한 가마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p> <p>용운리 청자 가마는 굴뚝과 천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고, 현재 국립광주박물관 옥외 전시장에 이전·복원되어 있다.</p> <p>국립광주박물관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삼흥리 청자 가마터 5기와 토기 가마터 9기를 발굴하였다.</p> <p>이때 보물 제1023호 ‘상약국’ 이 새겨진 청자합과 동일한 글자가 새겨진 청자합 조각이 출토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2	광주 충효동 가마터 光州 忠孝洞 窯址	<p>무등산에 자리한 충효동 가마터는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처음 발굴된 이후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다시 4기의 가마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마 주변 지역에서 여러 기의 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 제1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감, 인화, 박지, 조화, 귀얄 등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백자, 회청사기, 흑유자기가 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표기된 인화 분청사기는 주로 중앙 관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접과 접시를 위주로 병이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벼루, 제기, 묘지, 화분, 조롱박 모양의 병과 같이 특수한 기종도 제작되었습니다. 모란, 물고기, 게 등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조화 분청사기와 무늬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박지분청사기는 충효동 가마의 특징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어존’이라는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 마상배는 분청사기에 한글을 표기한 최초의 사례로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 이후 제작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광주 충효동 가마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 도자기의 생산 상황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 시대 가마 유적입니다.</p>	<p>무등산에 자리한 충효동 가마터는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처음 발굴된 이후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다시 4기의 가마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마 주변 지역에서 여러 기의 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적 제14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상감, 인화, 박지, 조화, 귀얄 등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를 비롯하여 백자, 회청사기, 흑유자기가 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표기된 인화 분청사기는 주로 중앙 관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접과 접시를 위주로 병이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벼루, 제기, 묘지, 화분, 조롱박 모양의 병과 같이 특수한 것도 제작되었습니다. 모란, 물고기, 게 등을 그린 조화분청사기와 무늬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박지분청사기는 충효동 가마의 특징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어존’이라는 한글이 새겨진 분청사기 마상배는 분청사기에 한글을 표기한 최초의 사례로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 이후 제작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광주 충효동 가마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 도자기의 생산 상황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 시대 가마 유적입니다.</p>	<p>광주 무등산에 있는 충효동 가마터는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처음 발굴된 이후 1991년 국립광주박물관이 다시 4기의 가마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가마 주변 지역에서 여러 기의 가마가 운영된 것이 확인되어 사적 제141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법의 분청사기를 비롯해 백자, 회청사기, 흑유자기가 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 글자가 표기된 인화 분청사기는 주로 중앙 관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접과 접시를 위주로 병이나 항아리뿐만 아니라 벼루, 제기, 조롱박 모양의 병 등 특수한 것도 제작되었다. 모란, 물고기, 게 등을 그린 조화분청사기와 무늬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박지(백토로 분장하고 무늬를 그린 후 무늬 외 배경을 굵어냄) 분청사기는 충효동 가마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한글로 ‘어존’이라고 새겨진 분청사기 마상배(말 위에서 사용하는 술잔)는 분청사기에 한글을 표기한 최초 사례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 이후 제작된 귀중한 자료이다. 이처럼 광주 충효동 가마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 도자기 생산 상황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가마 유적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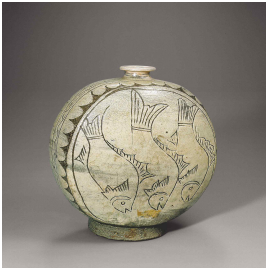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3	모란넝쿨 무늬 장구 靑磁鐵畫牡丹 唐草文長鼓	1983년과 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해저에서 목선 1척을 비롯하여 청자 3만 645점과 선상 생활용 금속제품, 목제품, 석제품 등 30여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자는 녹색색이나 녹색을 띤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철화 안료를 사용한 장구와 매병 15점도 있습니다. 그중 4점의 장구는 조롱목(장구 몸통 중앙)이 오늘날의 장구보다 좁고 길쭉한 형태입니다. 장구의 오른쪽은 채로 친다 하여 ‘채편’, 왼쪽은 손바닥으로 친다 하여 ‘북편’이라고 합니다. 장구의 양편에 소·말·양·개 등의 가죽을 대어 음의 높낮이를 조절했고,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만들어 공명효과 등도 고려했습니다. 가죽의 가장자리는 둥근 금속 테를 둘러 고정했습니다. 이 청자 장구는 해남군 진산리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란무늬와 당초무늬 등을 넣어 고려 시대 사람들의 미적인 감각과 격조 높은 풍류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 청자 장구는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쳐 강진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의 모습과 수로를 이용한 운송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1983년과 1984년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해저에서 목선 1척을 비롯하여 청자 3만 645점과 선상 생활용 금속제품, 목제품, 석제품 등 30여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자는 녹색색이나 녹색을 띤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철화 안료를 사용한 장구와 매병 15점도 있습니다. 그 중 4점의 장구는 조롱목(장구 몸통 중앙)이 오늘날의 장구보다 좁고 길쭉한 형태입니다. 장구의 오른쪽은 채로 친다 하여 ‘채편’, 왼쪽은 손바닥으로 친다 하여 ‘북편’이라고 합니다. 장구의 양편에 소·말·양·개 등의 가죽을 대어 음의 높낮이를 조절했고,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만들어 공명효과도 고려했습니다. 가죽의 가장자리는 둥근 금속 테를 둘러 고정했습니다. 이 청자 장구는 해남군 진산리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모란무늬와 당초무늬 등을 넣어 고려 시대 사람들의 미적인 감각과 격조 높은 풍류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 청자 장구는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쳐 강진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의 모습과 수로를 이용한 운송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장구는 1983년, 1984년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해저에서 목선 1척과 청자 3만 645점, 선상 생활용 금제품, 목제품, 석제품 등 30여점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4점의 장구는 조롱목(장구 몸통 중앙)이 오늘날 장구보다 좁고 길쭉한 형태이다. 장구 오른쪽은 채로 치는 ‘채편’, 왼쪽은 손바닥으로 치는 ‘북편’이다. 장구의 양편에 소, 말, 양, 개 등의 가죽을 대어 음의 높낮이를 조절했다. 또한 한쪽은 크게 다른 쪽은 작게 만들어 공명효과(소리 울림)도 생각했다. 가죽의 가장자리는 둥근 금속테를 둘러 고정했다. 이 청자 장구는 해남군 진산리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란무늬, 당초무늬 등을 넣어 고려시대 사람들의 미적 감각과 격조 높은 풍류를 뽐내고 있다. 이 청자 장구를 통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강진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의 모습과 수로를 이용한 운송 상황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4	갯버들 학 동자무늬 매병 靑磁象嵌蒲 柳鶴童子文 梅瓶	매병은 입구가 좁고 목 부분이 짧으며 넓은 어깨에서 아래로 서서히 좁아지다 다시 밖으로 조금 벌어지는 모양의 병입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이 매병은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무늬 소재인 물가 풍경이 상감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푸른 청자의 빛깔을 물빛으로 삼아 물가의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한 쌍의 학 그리고 두 명의 작은 동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물가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서정적인 운치를 자아냅니다. 또한 섬세하게 표현된 학이나 버드나무와는 달리 동자의 모습은 익살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상감 기법은 무늬를 음각으로 새기거나 파낸 뒤 붉은색의 자토 또는 흰색의 백토를 채워 넣고 유약을 입혀 굽는 방식입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청자는 12~1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매병은 입구가 좁고 목 부분이 짧으며 넓은 어깨에서 아래로 서서히 좁아지다 다시 밖으로 조금 벌어지는 모양의 병입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이 매병은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무늬 소재인 물가 풍경이 상감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푸른 청자의 빛깔을 물빛으로 삼아 물가의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한 쌍의 학 그리고 두 명의 작은 동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물가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서정적인 운치를 자아냅니다. 또한 섬세하게 표현된 학이나 버드나무와는 달리 동자의 모습은 익살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상감 기법은 무늬를 음각으로 새기거나 파낸 뒤 붉은색의 자토 또는 흰색의 백토를 채워 넣고 유약을 입혀 굽는 방식입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청자는 12~1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입구가 좁고 목 부분이 짧으며 넓은 어깨에서 아래로 서서히 좁아지다 다시 밖으로 조금 벌어지는 모양의 매병이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이 매병은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무늬인 물가 풍경이 상감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감기법이란 무늬를 음각으로 새기거나 파낸 뒤 자토(붉은 흙) 또는 백토를 채워 넣고 유약을 입혀 굽는 방식이다. 상감 기법의 청자는 12~1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 매병은 청자의 (푸른) 빛깔을 물빛으로 삼아 물가 커다란 버드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한 쌍의 학, 두 명의 작은 동자가 표현되어 있다. 검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는 물가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멋스럽다 (운치가 있다). 또 섬세하게 표현된 학이나 버드나무와 달리 동자의 모습은 익살스럽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5	달항아리 白磁壺	<p>‘달항아리’라는 이름은 그 모양이 달덩이처럼 둥그렇고 원만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처럼 완전히 둥글지는 않고 한쪽이 조금 내려앉은 듯한 비대칭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만들어 붙인 몸체의 한쪽이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에는 투명한 유약을 입혀 우윳빛에 가까우며 부분적으로 빙결이 크게 나 있습니다. 빙결은 도자기의 흙과 유약의 수축 정도가 달라 생기는 ‘가는 금’입니다.</p> <p>흔히 맑은 흰 빛과 너그러운 둥근 형태로 조선 백자의 미를 대표하는 것이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는 주로 왕실 행사에 사용했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생산되었습니다.</p>	<p>‘달항아리’라는 이름은 그 모양이 달덩이처럼 둥그렇고 원만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처럼 완전히 둥글지는 않고 한쪽이 조금 내려앉은 듯한 비대칭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만들어 붙인 몸체의 한쪽이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에는 투명한 유약을 입혀 우윳빛에 가까우며 부분적으로 빙결이 크게 나 있습니다. 빙결은 도자기의 흙과 유약의 수축 정도가 달라 생기는 ‘가는 금’입니다.</p> <p>맑은 흰 빛과 너그러운 둥근 형태로 조선 백자의 미를 대표하는 것이 달항아리입니다. 달항아리는 주로 왕실 행사에 사용했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생산되었습니다.</p>	<p>이것은 달항아리이다.</p> <p>‘달항아리’라는 이름은 달덩이처럼 둥그렇게 생긴 모양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달처럼 완전히 둥글지 않고 한쪽이 조금 내려앉은 듯한 비대칭을 보인다. 그 이유는 위쪽과 아래쪽을 따로 만들어 붙인 몸체의 한쪽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앉았기 때문이다.</p> <p>표면에는 투명한 유약을 입혀 우윳빛에 가까우며 부분적으로 가는 금이 있다.</p> <p>맑은 흰 빛과 너그러운 둥근 형태로 조선 백자의 미를 대표한다.</p> <p>달항아리는 주로 왕실 행사에 사용했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생산되었다.</p>	
56	구름 용무늬 항아리 白磁鐵畫雲龍文壺	<p>검붉은색을 띠는 산화철 안료는 조선 시대에 도자기를 꾸미는 용도로 폭넓게 쓰였습니다. 특히 17세기의 백자는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 흑갈색 무늬의 독특한 화풍을 구현했습니다. 대담한 붓질로 구름과 용무늬를 승천하듯 표현한 이 항아리는 왕권의 상징인 용무늬가 위엄과 권위에서 벗어나 해학과 소탈함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둥근 모양의 이 항아리는 물레로 한 번에 빚은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p>	<p>검붉은색을 띠는 산화철 안료는 조선 시대에 도자기를 꾸미는 용도로 폭넓게 쓰였습니다. 특히 17세기의 백자는 산화철 안료를 사용해 흑갈색 무늬의 독특한 화풍을 구현했습니다. 대담한 붓질로 구름과 용무늬를 승천하듯 표현한 이 항아리는 왕권의 상징인 용무늬가 위엄과 권위에서 벗어나 해학과 소탈함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둥근 모양의 이 항아리는 물레로 한 번에 빚은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인 것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p>	<p>이 항아리는 대담한 붓질로 구름과 승천하듯 하는 용무늬를 표현했다.</p> <p>왕권의 상징인 용무늬가 위엄과 권위에서 벗어나 해학과 소탈함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p> <p>둥근모양의 이 항아리는 물레로 한 번에 빚은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남아있다.</p> <p>검붉은 색을 띠는 산화철 안료는 조선시대 도자기를 꾸미는 데 널리 사용했다. 특히 17세기 백자는 산화철을 사용해 흑갈색 무늬의 독특한 화풍을 구현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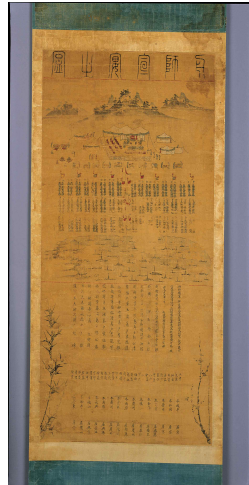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7	태항아리 白磁胎壺	<p>1624년에 태어난 인조의 넷째아들 용성대군의 태를 묻은 항아리입니다. 광주 신안동 태봉로의 현재 코리아나호텔 근처에서 태지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1624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는 도성을 떠나 공주에 머물렀고 왕후는 왕자를 순산하여 태를 계룡산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건강이 좋지 않자 왕후는 불공을 들였는데, 사흘째 되던 날 노승이 홀연히 나타나 말하기를 “왕자는 사주를 잘못 타고나서 첫돌을 넘기기 어렵다. 태를 좋은 곳에 묻어야 하는데, 지금 묻은 곳은 사악한 땅이니 가장 좋은 전라도 무등산 아래로 옮겨라. 그곳에는 도선국사가 절터로 삼은 곳이 있고 그 표식으로 붉은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 한주가 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왕자의 태를 묻으면 백세를 누릴 것이며 지맥을 얻어 영특함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1625년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산을 만들고 땅속의 잠귀를 물리치기 위해 태무덤에 손가락만한 금괴를 함께 묻었습니다. 태를 옮겨 묻은 이후 왕자는 병고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p>	<p>1624년에 태어난 인조의 넷째 아들 용성대군의 태를 묻은 항아리입니다. 광주 신안동 태봉로의 현재 코리아나호텔 근처에서 태지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1624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는 도성을 떠나 공주에 머물렀고 왕후는 왕자를 순산하여 태를 계룡산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건강이 좋지 않자 왕후는 불공을 드렸는데, 사흘째 되던 날 노승이 홀연히 나타나 말하기를 “왕자는 사주를 잘못 타고나서 첫돌을 넘기기 어렵다. 태를 좋은 곳에 묻어야 하는데, 지금 묻은 곳은 사악한 땅이니 가장 좋은 전라도 무등산 아래로 옮겨라. 그곳에는 도선국사가 절터로 삼은 곳이 있고 그 표식으로 붉은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왕자의 태를 묻으면 백세를 누릴 것이며 지맥을 얻어 영특함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1625년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산을 만들고 땅속의 잠귀를 물리치기 위해 태무덤에 손가락만한 금괴를 함께 묻었습니다. 태를 옮겨 묻은 이후 왕자는 병고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p>	<p>이 항아리는 1624년에 태어난 인조의 넷째 아들 용성대군의 태를 묻은 것이다. 광주 신안동 태봉로의 현재 코리아나호텔 근처에서 태지와 함께 출토되었다. 1624년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인조는 도성을 떠나 공주에 머물렀고 왕후는 왕자를 순산하여 태를 계룡산에 묻었다. 그러나 왕자의 건강이 좋지 않자 왕후는 불공을 드렸는데, 사흘째 되던 날 노승이 홀연히 나타나 말하기를 “왕자는 사주를 잘못 타고나서 첫돌을 넘기기 어렵다. 지금 태를 묻은 곳은 사악한 땅이니 가장 좋은 전라도 무등산 아래로 옮겨라. 그곳에 붉은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 한주가 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왕자의 태를 묻으면 백세를 누릴 것이며 지맥을 얻어 영특함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1625년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산을 만들고 땅속의 잠귀를 물리치기 위해 태무덤에 손가락만한 금괴를 함께 묻었다. 태를 옮겨 묻은 이후 왕자는 병고 없이 잘 자랐다고 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8	명기 白磁明器	<p>명기는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꺼묻는 그릇입니다. 귀기(鬼器) 또는 가기(假器)라고도 부릅니다. 죽은 이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생활용기뿐만 아니라 사람 또는 가축, 집 등을 작게 만들어 꺼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죽은 이를 위해 토기, 무기, 장신구, 토우 등을 꺼묻었으나, 명기 제도라는 예법이 도입된 것은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예학자 김장생이 우리나라의 예설을 집대성한『가례집람(家禮輯覽)』이라는 책에 명기와 관련된 예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남겨진 명기 사용의 최초 기록은 1420년(세종 1년) 정종의 국상에 명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p> <p>이 명기는 1968년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산 4번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접시, 항아리, 뚜껑, 병 등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주 지역 사대부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 시대의 장례 문화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명기는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묻는 그릇입니다. 귀기(鬼器) 또는 가기(假器)라고도 부릅니다. 죽은 이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생활용기뿐만 아니라 사람 또는 가축, 집 등을 작게 만들어 함께 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죽은 이를 위해 토기, 무기, 장신구, 토우 등을 함께 묻었으나, 명기 제도라는 예법이 도입된 것은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예학자 김장생이 우리나라의 예설을 집대성한『가례집람(家禮輯覽)』이라는 책에 명기와 관련된 예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헌에 남겨진 명기 사용의 최초 기록은 1420년(세종 1년) 정종의 국상에 명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p> <p>이 명기는 1968년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산 4번지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접시, 항아리, 뚜껑, 병 등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주 지역 사대부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 시대의 장례 문화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이것은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묻는 그릇인 명기이다.</p> <p>이 명기는 1968년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발견된 것으로 접시, 항아리, 뚜껑, 병 등 총 23개로 이루어졌다.</p> <p>완주지역 사대부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장례문화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p> <p>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죽은 이를 위해 토기, 무기, 장신구, 토우 등을 함께 묻었으나, 명기 제도라는 예법이 도입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p> <p>대표적인 예학자 김장생의 『가례집람』이라는 책에 명기와 관련된 예법이 설명되어 있다.</p> <p>문헌에 남겨진 명기 사용의 최초 기록은 1420년 정종의 국상에 명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9	물고기무늬 납작병 粉靑沙器彫 花魚文扁瓶	1916년 이왕가박물관에서 구입한 분청사기 편병입니다. 편병은 입구가 좁고 몸통이 납작하여 이동할 때 액체를 담아 휴대하기에 편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등근 몸체에 백토를 두텁게 바르고 양면에 여백 없이 물고기 3마리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다는 점입니다. 물고기무늬는 조화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화 기법은 그릇 전면에 백토를 바르고 무늬를 음각 선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화하여 표현되었지만 거침없이 그려낸 물고기무늬는 물고기 수천마리를 그려 본 듯 매우 능숙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1916년 이왕가박물관에서 구입한 분청사기 편병입니다. 편병은 입구가 좁고 몸통이 납작하여 이동할 때 액체를 담아 휴대하기에 편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등근 몸체에 백토를 두텁게 바르고 양면에 여백 없이 물고기 3마리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다는 점입니다. 물고기무늬는 조화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화 기법은 그릇 전면에 백토를 바르고 무늬를 음각 선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화하여 표현되었지만 거침없이 그려낸 물고기무늬는 물고기 수천마리를 그려 본 듯 매우 능숙한 필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1916년 이왕가박물관에서 구입한 분청사기 편병이다. 편병은 입구가 좁고 몸통이 납작하여 이동할 때 액체를 담아 휴대하기 편리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등근 몸체에 백토를 두텁게 바르고 양면에 여백 없이 물고기 3마리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것이다. 물고기는 그릇 전면에 백토를 바르고 무늬를 음각선으로 새기는 조화기법으로 장식했다.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거침없이 그려낸 무늬는 물고기 수천마리를 그려 본 듯 매우 능숙한 필치를 보여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0	번개무늬 제기 粉靑沙器象 嵌雷文祭器	<p>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보와 궤를 비롯하여 준, 작 등의 제기와 상형 제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제기는 주로 상감 조화 기법으로 장식했고 음각 장식으로 회청사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감으로 장식한 궤 뚜껑 안쪽에 ‘최상(崔尙)’과 같은 사기장의 이름을 새긴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납용으로 제작된 이 제기들은 국가의 제례와 왕실의 대소 의례에 사용되었습니다.</p> <p>우리 선조들은 제상 중앙에 ‘보’라는 네모반듯한 그릇과 ‘궤’라는 둥그스름한 형태의 그릇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우주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의 성격을 지닌 ‘보’에는 쌀과 조를, 양의 성격을 지닌 ‘궤’에는 찰기장과 메기장을 담았습니다.</p> <p>보통 ‘보’는 뚜껑 위와 몸통의 사면을 짐승 머리 모양의 무늬로 장식했고 하단부에 받침을 달았습니다. 이 도자 제기는 ‘보’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장식된 것이 특징입니다.</p>	<p>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보와 궤를 비롯하여 준, 작 등의 제기와 상형 제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제기는 주로 상감 조화 기법으로 장식했고 음각 장식으로 회청사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감으로 장식한 궤 뚜껑 안쪽에 ‘최상(崔尙)’과 같은 사기장의 이름을 새긴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납용으로 제작된 이 제기들은 국가의 제례와 왕실의 크고 작은 의례에 사용되었습니다.</p> <p>우리 선조들은 제상 중앙에 ‘보’라는 네모 반듯한 그릇과 ‘궤’라는 둥그스름한 형태의 그릇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우주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의 성격을 지닌 ‘보’에는 쌀과 조를, 양의 성격을 지닌 ‘궤’에는 찰기장과 메기장을 담았습니다.</p> <p>보통 ‘보’는 뚜껑 위와 몸통의 사면을 짐승 머리 모양의 무늬로 장식했고 하단부에 받침을 달았습니다. 이 도자 제기는 ‘보’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장식된 것이 특징입니다.</p>	<p>이것은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p> <p>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는 보와 궤를 비롯하여 준, 작 등의 제기와 상형 제기가 출토되었다.</p> <p>제기는 주로 상감 조화 기법으로 장식했고 음각 장식으로 회청사기를 만들기도 했다.</p> <p>상감으로 장식한 궤 뚜껑 안쪽에 ‘최상’과 같은 사기장의 이름을 새긴 것을 통해 공납용으로 제작된 이 제기들은 국가의 제례와 왕실의 의례에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p>우리 선조들은 제상 중앙에 ‘보’라는 네모반듯한 그릇과 ‘궤’라는 둥그스름한 그릇을 나란히 올렸다.</p> <p>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우주관이 반영된 것이다.</p> <p>그리하여 음의 성격을 지닌 ‘보’에는 쌀과 조를, 양의 성격을 지닌 ‘궤’에는 찰기장과 메기장을 담았다.</p> <p>보통 ‘보’는 뚜껑 위와 몸통 사면을 짐승 머리 모양의 무늬로 장식하고 하단부에 받침을 달았다.</p> <p>이 도자 제기는 ‘보’의 형태이나 간략하게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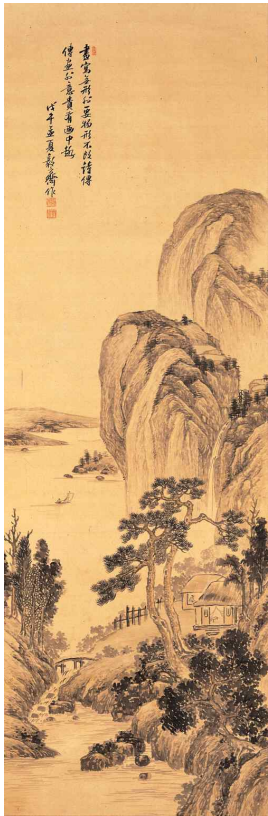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1	이천우 초상 李天祐肖像	<p>이천우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아들입니다. 1369년 이성계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했으며, 1392년 조선 건국을 도운 공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1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천우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고, 풍채가 아름다운데다가 재기와 도량이 있었다” 고 합니다.</p> <p>이 초상은 1400년경에 제작된 원본이 심하게 훼손되어 1774년 도화서 화원이었던 한종유(韓宗裕)가 본떠서 다시 그린 것입니다. 두 손을 모은 공수 자세에 왼쪽으로 향한 얼굴의 방향은 고려 시대 초상화의 형식을 보여 주며, 안면과 의복을 선묘 위주로 표현한 점은 조선 초기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p>	<p>이천우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아들입니다. 1369년 이성계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했으며, 1392년 조선 건국을 도운 공으로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1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천우는 어려서부터 활 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고, 풍채가 아름다운데다가 재기와 도량이 있었다” 고 합니다.</p> <p>이 초상은 1400년경에 제작된 원본이 심하게 훼손되어 1774년 도화서 화원이었던 한종유(韓宗裕)가 본떠서 다시 그린 것입니다. 두 손을 모은 공수 자세에 왼쪽으로 향한 얼굴의 방향은 고려 시대 초상화의 형식을 보여 주며, 안면과 의복을 선을 통해 표현한 점은 조선 초기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p>	<p>이천우의 초상이다. 이천우는 태조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아들이다. 1369년 이성계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했으며, 조선 건국을 돕고 1차, 2차 왕자의 난 때도 공을 세워 공신 반열에 올랐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천우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고, 풍채가 아름다운데다가 재기와 도량이 있었다” 고 한다. 이 초상은 1400년경에 제작된 원본이 심하게 훼손되어 1774년에 도화서 화원인 한종유가 본떠서 다시 그린 것이다. 공수(두 손을 모은)자세에 왼쪽으로 향한 얼굴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형식을 보여 준다. 또 안면과 의복을 선을 통해 표현한 것은 조선 초기의 전통을 반영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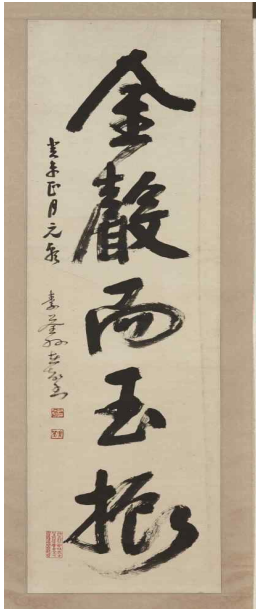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2	수군 장군들에게 배푼 연회 舟師宣宴圖	<p>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의 무훈을 기려 수군 장군들에게 배푼 연회를 그린 기록화입니다. 화면의 맨 위에 전서체(篆書體)로 ‘주사선연도’라는 그림의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연회 장면을 그렸습니다. 맨 아래에는 모임에 참여한 15명의 명단이 관직·성명·생년·자·본관·거주지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연회 장면은 상·중·하 3단으로 구분되는데, 산수를 배경으로 차일 안에서 장군들의 연회가 펼쳐지고, 적·황·청색의 깃발을 중심으로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군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행렬은 연회의 장소가 해안가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모임 참석자 명단의 좌우에 매화와 대나무를 그려 넣어 조선 중기 계획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p>	<p>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의 무훈을 기려 수군 장군들에게 배푼 연회를 그린 기록화입니다. 화면의 맨 위에 전서체(篆書體)로 ‘주사선연도’라는 그림의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연회 장면을 그렸습니다. 맨 아래에는 모임에 참여한 15명의 명단이 관직·성명·생년·자·본관·거주지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p> <p>연회 장면은 상·중·하 3단으로 구분되는데, 산수를 배경으로 차일 안에서 장군들의 연회가 펼쳐지고, 적·황·청색의 깃발을 중심으로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군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행렬은 연회의 장소가 해안가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모임 참석자 명단의 좌우에 매화와 대나무를 그려 넣어 조선 중기 계획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p>	<p>이 그림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의 무훈을 기려 수군장군들에게 배푼 연회를 그린 기록화이다.</p> <p>화면 맨 위에 전서체로 ‘주사선연도’라는 제목을 쓰고 그 아래 연회 모습을 그렸다.</p> <p>맨 아래에는 모임에 참석한 15명의 명단이 관직, 성명, 생년, 자, 본관, 거주지 등의 순서로 기록되었다.</p> <p>연회 장면은 상·중·하 3단으로 구분된다.</p> <p>산수를 배경으로 차일 안에서 장군들의 연회가 벌어지고, 적·황·청색의 깃발을 중심으로 열을 지어 앉아있는 군사들이 묘사되어 있다.</p> <p>아래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의 행렬은 연회의 장소가 해안가라는 것을 보여준다.</p> <p>모임 참석자 명단의 좌우에 매화와 대나무를 넣어 조선 중기 관료(사대부)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계획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3	가물첩 家物帖	<p>윤두서의 서화를 모아 놓은 화첩입니다. 윤두서의 아들인 윤덕희가 “가물첩”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윤두서가 최익한(崔翊漢)을 위하여 해남의 백련산방에서 1714년에 꾸민 것입니다. 최익한은 오랫동안 윤두서와 친분을 나눈 각별한 사람으로 윤두서가 타계하자 집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서화첩은 모두 30면으로 그림 23면, 글씨 7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산수화 4점, 산수인물화 8점, 인물화 3점, 말 그림 2점, 새 그림 3점, 소나무 그림 1점, 용 그림 1점, 죽석도 1점입니다. 두 점의 그림에 1714년이라는 연대가 적혀 있는데, 그해는 윤두서의 나이 46세로 해남에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산수·화조·동물·사군자·인물화 등으로 구성된 이 화첩의 그림들은 화보풍(畫譜風)의 그림부터 완성도 높은 것까지 수준 면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당대는 물론 그 이후의 화풍을 떠는 작품도 있습니다.</p>	<p>윤두서의 서화를 모아 놓은 화첩입니다. 윤두서의 아들인 윤덕희가 “가물첩”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윤두서가 최익한(崔翊漢)을 위하여 해남의 백련산방에서 1714년에 꾸민 것입니다. 최익한은 오랫동안 윤두서와 친분을 나눈 각별한 사람으로 윤두서가 타계하자 집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서화첩은 모두 30면으로 그림 23면, 글씨 7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산수화 4점, 산수인물화 8점, 인물화 3점, 말 그림 2점, 새 그림 3점, 소나무 그림 1점, 용 그림 1점, 죽석도 1점입니다. 두 점의 그림에 1714년이라는 연대가 적혀 있는데, 그 해는 윤두서의 나이 46세로 해남에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산수·화조·동물·사군자·인물화 등으로 구성된 이 화첩의 그림들은 화보풍(畫譜風)의 그림부터 완성도 높은 것까지 수준 면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당대는 물론 그 이후의 화풍을 떠는 작품도 있습니다.</p>	<p>윤두서의 서화를 모아 놓은 책이다. 윤두서의 아들인 윤덕희가 “가물첩”이라는 글씨를 썼다. 화첩의 내용은 윤두서가 오랫동안 친분을 나눈 최익한을 위해 해남의 백련산방에서 1714년 꾸민 것이다. 서화첩은 모두 30면으로 그림 23면, 글씨 7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은 산수화 4점, 산수인물화 8점, 인물화 3점, 말 그림 2점, 새 그림 3점, 소나무 그림 1점, 용 그림 1점, 죽석도 1점이다. 두 점의 그림에 1714년이라는 연대가 적혀있는데, 그 해는 윤두서가 46세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다. 이 화첩의 산수, 화조, 동물, 사군자, 인물화 등의 그림은 화보풍의 그림부터 완성도 높은 것까지 수준의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당대는 물론 그 이후의 화풍을 떠는 작품도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4	산수화첩 山水畫帖	8점의 산수화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 허련의 화첩입니다. 그림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중국 원말 4대가 중 한 사람인 예찬의 산수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언덕 위에 우뚝 선 나무와 인적 없는 쓸쓸한 정자의 모습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안 뒤로 멀리 산을 배치하는 구도는 중국 명대의 문인화풍을 띠기도 합니다. 여기에 허련 특유의 푸르스름한 분위기를 내는 연한 채색과 윤기 있는 먹의 능숙한 구사는 그림에 고상한 정취를 더해 줍니다. 무르익은 필력으로 보아 허련의 중년기 이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위에 쓴 문장(화제書題)은 대부분 중국의 서예가이자 화가인 동기창이 쓴 『화지(畫旨)』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8점의 산수화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 허련의 화첩입니다. 그림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중국 원말 4대가 중 한 사람인 예찬의 산수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언덕 위에 우뚝 선 나무와 인적 없는 쓸쓸한 정자의 모습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강기슭 뒤로 멀리 산을 배치하는 구도는 중국 명대의 문인화풍을 띠기도 합니다. 여기에 허련 특유의 푸르스름한 분위기를 내는 연한 채색과 윤기 있는 먹의 능숙한 구사는 그림에 고상한 정취를 더해 줍니다. 무르익은 필력으로 보아 허련의 중년기 이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위에 쓴 문장(화제書題)은 대부분 중국의 서예가이자 화가인 동기창이 쓴 『화지(畫旨)』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조선후기 문인화가 허련의 화첩으로, 8점의 산수화로 이루어졌다. 그림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중국 원말 4대가 중 한 사람인 예찬의 산수화 방식을 따랐다. 언덕 위에 우뚝 선 나무와 인적 없는 쓸쓸한 정자의 모습 등이 특징이다. 또한 강기슭 뒤로 멀리 산을 배치하는 구도는 중국 명대의 문인화풍을 띠기도 한다. 여기에 허련 특유의 푸르스름한 연한 채색과 윤기 있는 먹의 능숙한 구사는 그림의 고상한 정취를 더해 준다. 무르익은 필력으로 보아 허련의 중년기 이후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림 위에 쓴 문장은 대부분 중국 서예가이자 화가인 동기창이 쓴 『화지』의 글을 옮긴 것이다.	
65	국화와 대나무 菊圖, 竹圖	허련이 그린 이 국화와 대나무는 본래 하나의 화첩에 들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국화 그림은 괴석 옆으로 뻗은 가지에 탐스런 국화꽃이 피어올라 은은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푸른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져 청아한 느낌을 줍니다. 그림 상단에는 중국 명대의 대신이자 시인인 이동양이 지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나무 그림은 수목으로만 그렸습니다. 꽃꽂하게 뻗은 굵은 줄기, 활처럼 휘어진 가는 줄기, 먹빛이 다른 잎들이 조화를 이루며 정취와 격조를 자아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은 중국 당대의 대신이자 학자인 허경종이 지은 시입니다.	허련이 그린 이 국화와 대나무는 본래 하나의 화첩에 들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국화 그림은 돌 옆으로 뻗은 가지에 탐스런 국화꽃이 피어올라 은은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푸른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져 청아한 느낌을 줍니다. 그림 상단에는 중국 명대의 대신이자 시인인 이동양이 지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나무 그림은 수목으로만 그렸습니다. 꽃꽂하게 뻗은 굵은 줄기, 활처럼 휘어진 가는 줄기, 먹빛이 다른 잎들이 조화를 이루며 정취와 격조를 자아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은 중국 당대의 대신이자 학자인 허경종이 지은 시입니다.	허련이 그린 국화와 대나무로, 원래 하나의 화첩에 들어있던 것으로 보인다. 돌 옆으로 뻗은 가지에 탐스러운 국화가 피어 은은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푸른빛과 분홍빛이 어우러져 청아한 느낌을 준다. 그림 상단에 중국 명대의 이동양이 지은 글이 적혀 있다. 대나무는 수목으로만 그렸다. 꽃꽂하게 뻗은 굵은 줄기, 활처럼 휘어진 가는 줄기, 먹빛이 다른 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정취와 격조를 자아낸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글은 중국 당대의 허경종이 지은 시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6	채과도첩 菜果圖帖	<p>1839년 32세의 허련이 그린 채소와 과일 그림입니다. 이 해부터 허련은 김정희의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서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허련의 초기 작품으로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작은 화면에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섬세한 붓놀림으로 정교하게 그린 것으로 보아 매우 정성을 다하여 그린 듯합니다.</p> <p>첫 장에 있는 ‘추사십정’이라는 인장은 추사 김정희에게 심사를 받았다는 뜻의 도장이며, ‘허유’라는 인장의 ‘허유’는 허련의 다른 이름입니다.</p>	<p>1839년 32세의 허련이 그린 채소와 과일 그림입니다. 이 해부터 허련은 김정희의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서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허련의 초기 작품으로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작은 화면에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섬세한 붓놀림으로 정교하게 그린 것으로 보아 매우 정성을 다하여 그린 듯합니다.</p> <p>첫 장에 있는 ‘추사십정’이라는 인장은 추사 김정희에게 심사를 받았다는 뜻의 도장이며, ‘허유’라는 인장의 ‘허유’는 허련의 다른 이름입니다.</p>	<p>1839년 허련이 32세 때 그린 채소와 과일 그림이다.</p> <p>이 해부터 허련은 김정희의 문하에서 서화를 배우기 시작한다.</p> <p>그래서 이 작품은 허련의 초기 작품으로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그림이다.</p> <p>작은 화면에 여러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섬세한 붓놀림으로 정교하게 그린 것으로 보아 매우 정성을 다하여 그린 것 같다.</p> <p>첫 장에 있는 ‘추사십정’이라는 인장은 추사 김정희에게 심사를 받았다는 뜻의 도장이며, ‘허유’라는 인장은 허련의 다른 이름이다.</p>	
67	산수도 山水圖	<p>허련이 55세 되던 1862년 봄에 윤림산방에서 그린 산수도입니다. 1856년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추사 김정희가 숨을 거두자 허련은 진도로 내려와 윤림산방을 마련하고 다양한 남종화법을 세련되게 소화하며 개성적인 화풍을 정립했습니다. 이 산수도는 실제 경치가 아니라 중국의 화보집인 『개자원화전』과 『고씨화보』 등을 보고 익힌 각종 구도, 준법, 수지법 등을 토대로 허련이 새롭게 해석한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허련이 55세 되던 1862년 봄에 윤림산방에서 그린 산수도입니다. 1856년 스승이자 후원자였던 추사 김정희가 숨을 거두자 허련은 진도로 내려와 윤림산방을 마련하고 다양한 남종화법을 세련되게 소화하며 개성적인 화풍을 정립했습니다. 이 산수도는 실제 경치가 아니라 중국의 화보집인 『개자원화전』과 『고씨화보』 등을 보고 익힌 각종 구도, 준법, 수지법 등을 토대로 허련이 새롭게 해석한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허련이 55세 되던 1862년 봄에 윤림산방에서 그린 산수도이다.</p> <p>1856년 스승이자 후원자인 추사 김정희가 숨을 거두자 진도로 내려와 윤림산방을 마련하고 다양한 남종화법을 세련되게 소화하며 개성적인 화풍을 정립했다.</p> <p>이 산수도는 실제 경치가 아니라 중국의 화보집인 『개자원화전』과 『고씨화보』 등을 보고 익힌 각종 구도, 준법, 수지법 등을 토대로 허련이 새롭게 해석한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8	산수도 山水圖	<p>허백련은 허련의 방계 후손으로 어릴 적부터 허련의 아들인 허형에게서 화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913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진로를 바꾸어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의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가 1918년에 그린 이 산수도는 전통적인 관념산수화를 고수했던 초기 작품입니다. 먼 산세를 그린 필치와 바위를 표현하는 방법 등에서 조선시대 남종 산수화의 전형적인 일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풍은 그의 스승이었던 허형뿐만 아니라 허련의 화풍과도 유사한 것으로 전통 남종 산수화의 맥을 계승하고자 했던 그의 이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허백련은 허련의 방계 후손으로 어릴 적부터 허련의 아들인 허형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는 1913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진로를 바꾸어 일본 남화의 대가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의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가 1918년에 그린 이 산수도는 전통적인 관념산수화를 고수했던 초기 작품입니다. 먼 산세를 그린 필치와 바위를 표현하는 방법 등에서 조선시대 남종 산수화의 전형적인 일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풍은 그의 스승이었던 허형뿐만 아니라 허련의 화풍과도 유사한 것으로 전통 남종 산수화의 맥을 계승하고자 했던 그의 이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허백련이 그린 산수도이다. 허백련은 허련의 방계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허련의 아들인 허형에게 그림을 배웠다. 1913년 법학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떠났지만 진로를 바꾸어 일본 남화의 대가인 고무로 스이운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가 1918년에 그린 이 산수도는 전통적인 관념산수화를 고수했던 초기 작품이다. 먼 산세를 그린 필치와 바위를 표현한 방법 등에서 조선시대 남종 산수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화풍은 그의 스승인 허형뿐 아니라 허련의 화풍과도 유사한 것으로 전통 남종 산수화의 맥을 계승하고자 했던 그의 이상을 볼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9	행서 行書	<p>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서예가이자 서화 수집가인 손재형이 쓴 행서(行書)입니다. 손재형은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으며, 다섯 살 때부터 조부 손병익 슬하에서 한학과 서법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잇는 대가로 추앙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서예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해방을 맞으면서 손재형은 일본식 용어인 서도(書道) 대신 서예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오늘날 서예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1944년 그는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장하고 있던 일본인 후지츠카 지카시를 직접 찾아가 <세한도>를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금을 쳐서 시작하고 옥을 흔들어 마친다[金聲玉振](금성옥진)’는 의미입니다. 이 글귀는 맹자가 제자 만장과 주고받은 글을 모아 놓은 『맹자』 「만장」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덕을 음악에 비유해 ‘공자지위집대성(孔子之謂集大成)’이라고 했습니다. 공자 같은 이를 일컬어 집대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집대성이란 ‘풍악을 일으키는 사람이 금(金)으로 소리를 퍼뜨리고, 옥(玉)으로 거둔다는 것인데, 금으로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은 조리를 시작함이고, 옥으로 거둔다는 것은 조리를 끝냄이다’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	<p>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서예가이자 서화 수집가인 손재형이 쓴 행서(行書)입니다. 손재형은 부유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으며, 다섯 살 때부터 조부 손병익의 보살핌 아래서 한학과 서법의 기본을 익혔습니다. 추사 김정희를 잇는 대가로 추앙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서예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해방을 맞으면서 손재형은 일본식 용어인 서도(書道) 대신 서예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오늘날 서예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1944년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장하고 있던 일본인 후지츠카 지카시를 직접 찾아가 <세한도>를 되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금을 쳐서 시작하고 옥을 흔들어 마친다[金聲玉振](금성옥진)’는 의미입니다. 이 글귀는 맹자가 제자 만장과 주고받은 글을 모아 놓은 『맹자』 「만장」 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덕을 음악에 비유해 ‘공자지위집대성(孔子之謂集大成)’이라고 했습니다. 공자 같은 이를 일컬어 집대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집대성이란 ‘풍악을 일으키는 사람이 금(金)으로 소리를 퍼뜨리고, 옥(玉)으로 거둔다는 것인데, 금으로 소리를 퍼뜨린다는 것은 조리를 시작함이고, 옥으로 거둔다는 것은 조리를 끝냄이다’ (集大成也者 金聲而玉振之也 金聲也者 始條理也 玉振之也者 終條理也)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	<p>전남 진도 출신의 서예가이자 서화 수집가인 손재형이 쓴 행서이다. 손재형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다섯 살 때부터 조부 손병익 아래서 한학과 서법의 기본을 익혔다. 추사 김정희를 잇는 대가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서예계의 큰 인물이다. 그는 해방을 맞아 일본식 용어인 서도 대신 서예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오늘날 서예라는 용어가 통용되게 하였다. 손재형은 1944년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장하던 일본인 후지츠카 지카시를 직접 찾아가 이를 되찾아오기도 했다. 이 글은 ‘금을 쳐서 시작하고 옥을 흔들어 마친다.(금성옥진)’는 의미이다. 이 글귀는 맹자가 제자 만장과 주고받은 글을 모은 『맹자』, 『만장』 편에 수록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0	생원 동기생들의 모임 蓮榜同年一 時曹可契會圖	<p>1531년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인 사마시에 함께 합격한 7명은 11년이 지난 1542년에 지난 과거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고 신진 관료로서 의기투합하는 모임을 갖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화면의 맨 위에는 제목을 적고 그 아래쪽에는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직위와 이름, 본관 등 이른바 참석자 명단인 좌목(座目)을 적었습니다. 그림은 16세기 솜씨 있는 화원이 그린 것으로서 안견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화면 속 너른 언덕 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9명입니다. 술시중을 드는 두 사람을 제외한 주인공 7명은 넷, 셋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명단을 나이순으로 정리하면 민기(閔箕, 1504~1568), 남응운(南應雲, 1509~1587), 이택(李澤, 1509~1573), 이추(李樞, 생몰년 미상 1539년 문과 급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윤옥(尹玉, 1511~8154)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림이 오래되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p> <p>이 그림에는 홍문관 정자인 김인후가 쓴 칠언율시가 있습니다. 그림은 인원수대로 7점이 그려졌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는 김인후의 시가 적힌 이 그림만 남아 있습니다.</p>	<p>1531년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인 사마시에 함께 합격한 7명은 11년이 지난 1542년에 지난 과거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고 신진 관료로서 의기투합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화면의 맨 위에는 제목을 적고 그 아래쪽에는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직위와 이름, 본관 등 이른바 참석자 명단인 좌목(座目)을 적었습니다. 그림은 16세기 솜씨 있는 화원이 그린 것으로서 안견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p> <p>화면 속 너른 언덕 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9명입니다. 술시중을 드는 두 사람을 제외한 주인공 7명은 넷, 셋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명단을 나이순으로 정리하면 민기(閔箕, 1504~1568), 남응운(南應雲, 1509~1587), 이택(李澤, 1509~1573), 이추(李樞, 생몰년 미상 1539년 문과 급제),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윤옥(尹玉, 1511~8154)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림이 오래되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p> <p>이 그림에는 홍문관 정자인 김인후가 쓴 칠언율시가 있습니다. 그림은 인원수대로 7점이 그려졌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는 김인후의 시가 적힌 이 그림만 남아 있습니다.</p>	<p>이 작품은 1531년 생원과 진사 선발 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한 7명은 11년이 지난 1542년에 지난 과거 준비 과정을 돌아보고 신진관료로서 의기투합하는 모임을 갖고 이를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p> <p>화면 맨 위에 제목을 적고 그 아래쪽에 참석자 직위와 이름, 본관 등을 적었다.</p> <p>16세기 솜씨 있는 화원의 작품으로 안견의 산수화풍을 엿볼 수 있다.</p> <p>화면 속 너른 언덕 위에 등장인물은 모두 9명이다.</p> <p>술시중을 드는 두 사람을 제외한 주인공은 넷, 셋으로 마주보고 앉았다.</p> <p>명단을 나이순으로 보면 민기, 남응운, 이택, 이추, 김인후, 윤옥이다.</p> <p>나머지 한 사람은 그림이 오래되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p> <p>이 그림에는 홍문관 정자인 김인후가 쓴 칠언율시가 있다.</p> <p>그림은 인원수대로 7점이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는 김인후의 시가 적힌 이 그림만 남아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1	대나무 墨竹圖	<p>2001년 장성군에 거주하는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기증한 그림입니다. 인종이 세자 시절에 김인후에게 그려준 것으로 그림의 제작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3년(중종 38) 정월 초이레 한밤중 동궁전에 불이 나자 중종은 대노하여 대사간을 파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는 “부덕한 몸이 참람하게 동궁에 있어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면서 아련한 심사를 묵죽도에 담아 세자시강원에 갇 들어온 김인후에게 하사했습니다. 이를 받은 김인후는 가파른 바위에 자리 잡은 대나무에서 위태로운 세월을 이기겠노라는 세자의 의지를 읽고 그림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완전해, 돌을 벗 삼은 정갈한 뜻은 한 폭에 가득하네. 신묘한 필치가 자연의 조화를 닮아, 세상도 이를 어길 수 없음을 알겠네.”</p> <p>이 그림뿐만 아니라 세자는 교서관에서 갇 간행한 『주자대전』과 술까지 선사할 정도로 김인후와 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p>	<p>2001년 장성군에 거주하는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기증한 그림입니다. 인종이 세자 시절에 김인후에게 그려준 것으로 그림의 제작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543년(중종 38) 정월 초이레 한밤중 동궁전에 불이 나자 중종은 크게 화내며 대사간을 파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는 “부덕한 몸이 참람하게 동궁에 있어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면서 아련한 심사를 묵죽도에 담아 세자시강원에 갇 들어온 김인후에게 하사했습니다. 이를 받은 김인후는 가파른 바위에 자리 잡은 대나무에서 위태로운 세월을 이기겠노라는 세자의 의지를 읽고 그림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완전해, 돌을 벗 삼은 정갈한 뜻은 한 폭에 가득하네. 신묘한 필치가 자연의 조화를 닮아, 세상도 이를 어길 수 없음을 알겠네.”</p> <p>이 그림뿐만 아니라 세자는 교서관에서 갇 간행한 주자대전과 술까지 선사할 정도로 김인후와 깊은 사이였다고 합니다.</p>	<p>이것은 2001년 장성군에 거주하는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중에서 기증한 그림이다.</p> <p>이 그림은 인종이 세자 때 김인후에게 그려준 것으로, 그림을 그린 배경은 다음과 같다.</p> <p>1543년 정월 초이레 한밤중 동궁전에 불이 나자 중종은 크게 화를 내며 대사간을 파직했다.</p> <p>이런 상황에서 세자는 “부덕한 몸이 참람하게 동궁에 있어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면서 아련한 심사를 묵죽도에 담아 세자시강원에 갇 들어온 김인후에게 하사했다.</p> <p>이를 받은 김인후는 가파른 바위에 자리 잡은 대나무에서 위태로운 세월을 이기겠노라는 세자의 의지를 읽고 그림에 다음과 같이 썼다.</p> <p>“뿌리와 가지, 마디와 잎새가 모두 완전해, 돌을 벗 삼은 정갈한 뜻은 한 폭에 가득하네. 신묘한 필치가 자연의 조화를 닮아, 세상도 이를 어길 수 없음을 알겠네.”</p> <p>이 그림뿐 아니라 세자는 교서관에서 갇 간행한 주자대전과 술까지 선사할 정도로 김인후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한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2	현자 총통 玄字銃筒	<p>총통은 화약을 이용하여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총통은 크기, 사용되는 화약의 양, 발사거리에 따라 천(天)자 총통, 지(地)자 총통, 현(玄)자 총통, 황(黃)자 총통으로 구분합니다. 이 유물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현자 총통입니다. 화약이 들어가는 약실은 몸통보다 약간 도톰하며 점화 구멍은 약실 오른쪽에 뚫려 있으며 총통의 몸 가운데 부분에는 손잡이 1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현자총통으로 화살과 둥근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약실에 남아 있는 명문으로 보아 이 현자총통은 명종 10년, 즉 155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자 총통은 명문이 있는 것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이며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화포 발달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현재 보물 제12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	<p>총통은 화약을 이용하여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총통은 크기, 사용되는 화약의 양, 발사거리에 따라 천(天)자 총통, 지(地)자 총통, 현(玄)자 총통, 황(黃)자 총통으로 구분합니다. 이 유물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현자 총통입니다. 화약이 들어가는 약실은 몸통보다 약간 도톰하며 점화 구멍은 약실 오른쪽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총통의 몸 가운데 부분에는 손잡이 1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현자총통으로 화살과 둥근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약실에 남아 있는 명문으로 보아 이 현자총통은 명종 10년, 즉 155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자 총통은 명문이 있는 것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이며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화포 발달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현재 보물 제12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	<p>이 유물은 화약을 이용해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총통의 일종인 현자총통이다. 화약이 들어가는 약실은 몸통보다 약간 도톰하며 점화 구멍은 약실 오른쪽에 뚫려 있다. 그리고 총통의 몸 가운데 부분에는 손잡이 1개가 달려 있다. 이 현자총통의 약실에 남아있는 명문으로 보아 155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이 있는 것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이며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화포 발달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보물 제1233호로 지정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3	모란넝쿨 무늬 꽃병 靑磁陰刻牡丹 唐草文花瓶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의 제사용 그릇인 ‘준’의 형태를 본떠 14세기 초반 중국 저장성 퉁취안요에서 만든 청자 꽃병입니다. 중국 최대의 청자 가마인 퉁취안요에서는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까지 청자를 수출했습니다. 이 꽃병은 입이 넓게 벌어져 있고 긴 목 부분에는 가로 선이 같은 간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몸체 윗부분에는 풍성한 모란 무늬가 입체감 있게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에는 연꽃잎무늬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던 주요한 청자 품목 가운데 하나였던 이러한 꽃병은 사원의 불전이나 법당에 꽃을 꽂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의 제사용 그릇인 ‘준’의 형태를 본떠 14세기 초반 중국 저장성 퉁취안요에서 만든 청자 꽃병입니다. 중국 최대의 청자 가마인 퉁취안요에서는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까지 청자를 수출했습니다. 이 꽃병은 입이 넓게 벌어져 있고 긴 목 부분에는 가로 선이 같은 간격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몸체 윗부분에는 풍성한 모란 무늬가 입체감 있게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에는 연꽃잎무늬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던 주요한 청자 품목 가운데 하나였던 이러한 꽃병은 사원의 불전이나 법당에 꽃을 꽂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의 제사용 그릇인 ‘준’의 형태를 본떠서 14세기 초반 중국 저장성 퉁취안요에서 만든 청자 꽃병이다. 퉁취안요는 중국 최대의 청자 가마이다. 이곳에서는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까지 청자를 수출했다. 이 꽃병은 입이 넓게 벌어졌고 긴 목 부분에 가로 선이 같은 간격으로 둘러져 있다. 몸체 윗부분에는 풍성한 모란무늬가 입체감 있게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에는 연꽃잎무늬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꽃병은 일본으로 수출하던 주요 청자 중 하나로 사원의 불전이나 법당에 꽃을 꽂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74	소를 탄 동자모양 연적 白磁水牛童子形硯滴	이 백자 연적은 물소 위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특이한 모습인데, 중국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연적에 많습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징더전요에서 만든 이 연적은 물소의 등 부분과 입에 난 구멍으로 물을 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백자 생산 가마인 징더전요는 특히 순백의 바탕흙에 푸른빛이 도는 청백자로 유명했습니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백자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의 연적이 여러 점 있으며,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갈색 반점으로 장식한 것도 있습니다.	이 백자 연적은 물소 위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연적에 이러한 모양이 많습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징더전요에서 만든 이 연적은 물소의 등 부분과 입에 난 구멍으로 물을 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백자 생산 가마인 징더전요는 특히 순백의 바탕흙에 푸른빛이 도는 청백자로 유명했습니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백자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의 연적이 여러 점 있으며,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갈색 반점으로 장식한 것도 있습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징더전요에서 만든 백자연적이다. 물소의 등 부분과 입에 난 구멍으로 물을 넣고 따를 수 있다. 물소 위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 이런 모양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 생산된 연적에 많다. 징더전요는 중국의 대표적인 백자 생산 가마로 특히 순백의 바탕흙에 푸른빛이 도는 청백자로 유명했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백자 중에서 이와 같은 모양의 연적이 여러 점 있으며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갈색 반점으로 장식한 것도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5	구름 용무늬 항아리 白地黑花雲 龍文壺	14세기 초반 중국 허베이성 츠저우요에서 만든 이 항아리는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름 속에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츠저우요는 당 말기부터 송·원대에 번성했던 가마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바른 후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거칠면서 순박하고 힘 있는 무늬를 그린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그림이나 문자 등을 붓을 이용하여 그린 뒤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것을 ‘백지흑화(白地黑花)’ 기법이라고 합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허베이성 츠저우요에서 만든 이 항아리는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름 속에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츠저우요는 당 말기부터 송·원대에 번성했던 가마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바른 후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거칠면서 순박하고 힘 있는 무늬를 그린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그림이나 문자 등을 붓을 이용하여 그린 뒤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것을 ‘백지흑화(白地黑花)’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14세기 초반 중국 허베이성 츠저우요에서 만들었다.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구름 속에 용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츠저우요는 당 말기부터 송, 원대에 번성했던 가마로, 그릇 표면에 백토를 바른 후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거칠면서 순박하고 힘 있는 무늬를 그린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백토를 입히고 그 위에 그림이나 문자 등을 붓을 이용해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워낸 것을 ‘백지흑화’ 기법이라고 한다.	
76	거북 등갑무늬 매병 黑釉玳瑁文 梅瓶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지저우요에서 제작된 흑유 매병입니다. 지저우요는 북송 때 청백자를 생산하다가 점차 흑유자기와 흰 바탕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린 자기를 생산하던 가마입니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 가운데 지저우요에서 만든 병, 항아리, 사발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흑유 매병은 흑색 광택의 유약 표면에 황갈색 빛을 띠는 안료를 사용하여 거북의 등딱지인 대모와 같은 분위기의 반점 무늬를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지저우요에서 제작된 흑유 매병입니다. 지저우요는 북송 때 청백자를 생산하다가 점차 흑유자기와 흰 바탕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린 자기를 생산하던 가마입니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 가운데 지저우요에서 만든 병, 항아리, 사발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흑유 매병은 흑색 광택의 유약 표면에 황갈색 빛을 띠는 안료를 사용하여 거북의 등딱지인 대모와 같은 분위기의 반점 무늬를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14세기 초반 중국 장시성 지저우요에서 제작된 흑유 매병이다. 지저우요는 북송 때 청백자를 생산하다가 점차 흑유자기와 흰 바탕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린 자기를 생산하던 가마이다. 신안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 중 지저우요에서 만든 병, 항아리, 사발도 함께 발견됐다. 이 흑유매병은 흑색 광택의 유약 표면에 황갈색 빛의 안료를 사용해 거북의 등딱지 같은 반점 무늬를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